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부끄럼 없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라다 아모스 5장 24절

### ‘2020 미국의 선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 FOX News/BBC, 대선 부정/사기 투표 논란으로 연방대법까지 갈 가능성 보도

끝나도 끝나지 않은 '2020 대선 결과'에 후 폭풍이 만만치 않다. 친 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진 부정선거 의혹들을 놓고 증거들을 제시해 경합자들의 개표결과와 승자를 뒤집으

려는 법적투쟁에 본격 착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법률팀은 오늘부터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연방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바꿨기 때문에 선거일후에 도착해 개표된 바이든 표의 무효화를 이끌어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법적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2020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하고 정권인수 준비에 착수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들을 파헤치겠다는 법적투쟁에 본격 나섰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난 8일 ABC방송에 출연해 "단지 공정한 선거였는지 알아보는 것인데 왜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라고 법적투쟁의 당위성을 항변했다.

그녀는 "미시간에서는 컴퓨터 결함으로 공화당 표가 민주당 표로 둔갑한 일이 일어났고 펜실베이니아에선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며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난 일인지, 그 일이 결과를 바꿀만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단지 공정한 선거였는지 알아보는 것에 왜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why is everybody so scared just to have a fair election and find out)"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엘 고어에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기까지 절차를 밟을 37일이 주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7060만 미국인에게 왜 똑같은 배려를 하지 못하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 바이든이 진실로 이 나라를 통합하길 원한다면, 그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했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핵심 경합지들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9일부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첫째,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선 주 대법원이 선거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개표하도록 한 주 법률이 있는데 사흘 후 도착 분까지 개표하도록 결정한 것은 법을 새로 쓴 연방법 위반이므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 바이든 승리를 안겨준 선거일후 도착한 표들을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보수파인 새뮤얼 알리토 연방

대법관이 위법의 소지를 고려해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일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한 표들을 분리토록 명령해놓고 있어 트럼프측의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수진영에선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막판까지 최대 60만표에서 최소 1만8000표 앞서다가 역전 당했는데 선거일 저녁 8시 이후 도착해 개표된 우편투표가 10만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판결로 무효화되면 바이든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6명이 걸려 있는 미시간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트럼프표 6000표가 바이든표로 잘못 계산됐고 미시간 전체 83개 카운티의 절반인 47개 카운티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투쟁에도 전력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건 카운티들의 절반, 미전역에선 30여개 주에서 사용한 투표기와 개표기의 소프트웨어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제품인데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미국에서 주로 영업해온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NBC 보도가 지난해 12월 19일에 나온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만약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이용된 의혹이 확인되고 이에 중국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무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측은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부정선거 전문가 한스 본 스톱코프스키 변호사로부터, 이미 2018년과 올해 4월 자행될 수 있는 부정선거 모델들과 대비책을 담은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이미 부정선거 물증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관측을 받고 있다.

BBC는 법적투쟁이 이뤄질 경우, 향후 진행될 상황을 정리해준다(US presidential election: could a winner be decided in court?).

(3면으로 계속)



### 미 5개 주 마리화나 합법화 통과

미 언론, 2일 선거 따라 아리조나,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허용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5개 주의 유권자들이 마리화나 관련 법 완화를 위한 투표했다. 미국 전 지역에서 마리화나 규제를 자유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Marijuana Legalization Measures Pass In 5 States: Arizona, Mississippi, Montana, New Jersey and South Dakota voters backed ballot measures to relax cannabis laws).

### 미국내 오락용 16개 주와 워싱턴DC, 의료용 27개 주 허용 대통령 당선인과 상원 장악 당 따라 연방정부 정책도 변화

뉴욕타임스(NYT)와 A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몬태나주, 뉴저지주,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성인들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됐다. 사우스다코타 유권자들과 미시시피 유권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안도 승인했다.

아리조나주의 경우 60% 찬성 대 40% 반대, 뉴저지주의 경우 67% 찬성 대 33% 반대였다. 몬태나 주민들은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 허용을 57% 찬성 대 43% 반대에 투표했다. 또 최소 21세를 합법적인 마리화나 구매 연령

으로 지정하고 소지, 사용하도록 주 헌법 개정을 승인하는 안건에는 찬성 58% 대 반대 42%의 결과가 나왔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주 헌법을 개정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안건을 찬성 53% 대 47%로 승인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안건은 69% 찬성 대 31% 반대였다.

미시시피 주민들은 두 개의 선택에 직면했다. 첫 번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에는 68% 찬성 대 32% 반대에 표를 행사했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권혁천 목사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생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org / chbook@chbook.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ages 5+**

Unknown Adaptability Courage Patience

**What's Inside**  
Change is impossible to avoid because it happens ALL the time! In this book, the author speaks on how to cope with and embrace life's changes by recounting personal stories and asking kids pointed questions. Empathetic and encouraging, this book emphasizes talking through life's many changes with the people you care about and trust.

**About the Author**  
David Kim was born in Seoul, Korea, but is now pastoring in Silicon Valley where there is constant change! And as a husband and father of two young girls, he is still learning to navigate change with them every day! You can find him @davidjanghyunkim on instagram and davidjanghyunkim.com.

**akidsbookabout.com**  
Designed in Portland, Oregon  
A Kids Book About, Inc

## a kids book about CHANGE

“이민자의 자녀로, 청년 목회자로 사는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변화는 필요하다!”

한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지금은 미국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저자가 삶의 큰 변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변화를 겪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책이며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너무 적절한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2020년에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로 선정)

저자: 데이비드 김(웹사이트 주소)  
구입문의: 웹사이트 akidsbookabout.com 단체주문시 할인



발행인 칼럼

나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질문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누군가의 답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의 답변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누군가를 향하신 질문이었지만 그 모든 질문들은 또한 나를 향한 질문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자. 그리고 답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 물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야 하는 질문이다.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며 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야 한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가인은 이미 동생을 죽였다. 그의 답은 너무 뻔뻔했다. 아니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반문을 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슬픈 답변, 비열한 답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 인간(人間)은 그 단어 속에 이미 의존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서로 관계라고 불리는 책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 나의 인간관계는 허물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맺어 있는지 이상한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올바른 답변을 드러야 한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다. 어려운 가운데 네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말해보라는 것이다.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방향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미국의 메튜 에몬스는 눈앞에 둔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다. 다른 선수들보다 확연히 앞선 상황에서 그가 쏜 마지막 한 발이 다른 표적지를 향해 날아가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느냐?”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물으셨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려는 따뜻한 질문을 던지신 것이다. 그의 답변은 분명했다. 그리고 간절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의 소원을 분명히 답해야 한다. 무엇인가 무너진 인생을 향해 던진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어놓을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딱한 인생으로 계속 살겠다는 어리석은 심사(心思)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달린 답변이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만 있지 말고 나의 선명함 믿음의 고백을 담은 답변을 예수님께 드러야 한다.

“너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묻고 계시다. “그 아흠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병에서 치유된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은 자들을 찾으시면서 질문하시지 않으셨던가. 감사의 달에 나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너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은 (건물/기술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Churchleaders.com, 미니스트리텍 편집장 레이 홀렌백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 변화 소개

우리는 9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 가운데 지냈다.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 구조는 재조정되고, 모든 예배 모임도 크나큰 영향을 받았다. 팬데믹은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백신의 완성이 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제조에서 납품이 원활해질 때까지, 즉 2021년까지는 계속 기존 교회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요구받을 것이다.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 더 이상 '이전의 일상(old normal)'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교회는 기술적인 질문에 직면했는데, “앞으로 무엇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것인가?”이다. 즉,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무엇이 기술적으로 교회 사역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인가? ‘Ministry Tech’의 편집장, 레이 홀렌백(Ray Hollenbach)은 팬데믹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켰는지 말해준다(How the Pandemic Has Changed Church).

사실 이러한 질문은 크게 새롭진 않다. 교회는 항상 ‘기술’을 사용해왔다. 파피루스 종이와 잉크, 스테인드글라스 그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까지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사용 가능하고 구입 가능한 기술은 무엇이든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예배학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영구적인 부분이 될 것인지,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고려하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우리가 이미 알게 된 세 가지 기술적인 교훈과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 있다.

첫째, 모든 교회는 안전한 ISP(인터넷 연결망 서비스) 해택이 필요하다. 교회학교에도 인터넷이 필요하다.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최신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관심해 보일 것이다. 좋던 나쁜던 주일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정된 무선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기를 원한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회다. 연로한 성도들은 더 이상 바깥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주일 아침마다 교회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아기가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도 찬양과 예배 그리고 가르침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역교회로부터 제공

셋째, ChMS(교회 관리 소프트웨어)는 계속 성장한다.

사실 작은 교회들은 소프트웨어가 구축돼있지 않아도 회중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교회에 ChMS(Church Management Software)가 필요한 것인가? 이 기술은 악천후나 보안 문제, 또는 교회 전체의 긴급한 요구 사항 등 성도들과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 사태가 준 한 가지 슬픈 교훈은 교회의 현금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 ChMS는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돕



ISP구축, 영상생중계, 교회관리기능 중시해도 대면교제 필요 신성한 부르심과 사명 잃지 않고 기술적 변화 향해 나아가야

첫째, 모든 교회는 안전한 ISP(인터넷 연결망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교회에 유선전화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유선전화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전화로 교회의 유선전화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다. 언젠간 시간이 흐르면 인터넷 기술도 팩스처럼 여겨지게 되겠지만 다음 기술적 변화가 오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기술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가장 작은 시골 교회조차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둘째, Live Streaming(영상 생중계)은 이제 교회 사역의 영구적인 부분이다.

교회가 다시 수천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예배를 생중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는 주일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회가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지속한다면 말이다.

새신자들은 교회 문을 들어서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교회를 ‘시도(sampling)’해 볼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임시적으로 마련한 장비들을 조금 더 빠른 속도와 좋은 품질의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교회예산에 있어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돼 있는가?

다. 대부분의 ChMS 패키지는 온라인 헌금 이체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 헌금 이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팔이나 벤모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앱을 그들의 휴대폰에서 사용한다.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헌금을 가져야 받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

하나님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신다. 예수님께서도 민족 국가나 사회 제도, 회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 다만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신 이유다. (4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검류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인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 및 미용성형외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 Fax: (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2020 미국의 선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면에서 계속)  
지금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렵다. 보통 한 후보가 대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 후보가 승리자라고 선언한다. 대체로 투표일 다음 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공식적인 최종 결과가 아니다. 예상 결과이며, 최종 공식 집계까지는 항상 수일이 걸렸다. 특히나 올해는 우편투표 수가 증가하면서 개표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개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시간이 더 소요된다.

우편투표 개수는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투표소 검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초당적정책연구소(BPRC)의 선거 프로젝트 책임자인 매튜 웨일은 "대선이 너무 박빙이고, 그 어떤 후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개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투표일 전부터 있었던 장애물

투표일이던 3일 전까지 44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우편 및 조기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투표용지 표시 및 접수 마감일, 필요한 증인 서명, 투표용지 게시용 봉투 등 다양했다.

공화당 집권 주들은 유권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규

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시민권 행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모든 투표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처럼 늦게 도착한 표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선일 투표



는 이미 마감됐다. 웨일은 "대법원은 법정 개표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리콜트 교수는 주요 주에서 벌어진 점점들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헌법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 표준 절차는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선거결과에 이익이 제기 될 경우 법적 절차

선거결과에 이익을 제기하려던 먼저 주 법원 법률팀이 그 결과에 이익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면 주 판사들이 그 문제에 동의하고 재검표를 명령해야 하며, 이후 대법관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표차가 매우 적게 나면 재검표가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을 당시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나 더 길어질 수 있나

미국 대선은 연방 및 헌법이 규정해놓은 마감일이 있다.

### 최종 데드라인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웨일은 "이날 정오에 누군가 대통령 맹세를 해야 한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후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대통령을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상원은 부통령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이 취임식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6 대 3 절대보수 우위로 재판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물증 찾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경합지에서 승자가 바뀔 정도의 부정표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아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12월 14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위해 각 주에서 소집된다.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으면, 의회는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한다.

상원이 부통령을 확정하는 동안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

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에 실시된 YouGov 조사에서는 54%의 미국인들이 주 기반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공' 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리화나 활동가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지속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선거일 전 여론조사는 대중이 이제 그들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갤럽의 또 다른 조사는 70%의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에 실시된 YouGov 조사에서는 54%의 미국인들이 주 기반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공' 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와 상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정책도 바뀔 수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이 성인들의 오락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수십 개 주와 언제쯤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서로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바이든-부통령 펜스 조합을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

주별로 한 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표를 행사하며, 대표단 26명을 획득하는 쪽이 신임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웨일은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많은 것이 잘못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결과도 아주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는 주들이 항방을 정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주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한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표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 최종 데드라인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까지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웨일은 "이날 정오에 누군가 대통령 맹세를 해야 한다. 만약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후 계획에 착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대통령을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상원은 부통령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이 취임식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상원에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6 대 3 절대보수 우위로 재판됐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물증 찾기는 쉽지 않은데다가 경합지에서 승자가 바뀔 정도의 부정표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아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다.

12월 14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위해 각 주에서 소집된다.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으면, 의회는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한다.

상원이 부통령을 확정하는 동안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

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에 실시된 YouGov 조사에서는 54%의 미국인들이 주 기반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공' 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리화나 활동가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지속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선거일 전 여론조사는 대중이 이제 그들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갤럽의 또 다른 조사는 70%의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에 실시된 YouGov 조사에서는 54%의 미국인들이 주 기반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공' 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와 상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정책도 바뀔 수 있다. 연방정부의 정책이 성인들의 오락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수십 개 주와 언제쯤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 시론

### 신앙생활 레시피는 어디에 있나?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레시피(recipe)란 '조리용어의 하나로 음식 만드는 방법'이라는 단어이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전 세대, 먹고살기 힘들 때 아무거나 먹고 살았고, 심지어 찹뿌리라도 뜯어대며 허기진 배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청률 높은 TV프로그램의 상위에는 요리 프로그램이나 먹방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요해진 것인지 단지 먹고사는 삶을 넘어 맛은 물론 품격 있는 식탁문화를 누리는 삶으로 올라선 나름 선진국이 되었고 그와 맞추어 레시피라는 단어도 삶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먹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은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고, 40일 금식 후 허기졌을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했다고, 그런가하면 예수님은 지탄받던 세리장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나누기도 했다. 하물며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도 다락방에 둘러앉은 만찬식탁이었는데, 하물며 아예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후 그 '생명의 떡'은 2천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상징시키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늘날 실력 있는 요리사들의 레시피는 맛과 품위를 가르쳐주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자리를 좋아하셨지만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레시피를 남기지는 않으셨다. 그 분이 남긴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당시 자신이었던. 자신이 개발한 삶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만을 귀뜸해주고 떠나셨다. 그래서인지 이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레시피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했고, 그 떡을 만드는 방법들을 꽤 많이 연구해왔던 것 같다.

초대교회 이후 로마카톨릭교회는 그렇다치고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protestant)는 500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 레시피 개발을 통해 개혁을 이루려했다면 너무 지나친 말인가? 사실, 갈수록 떡 맛보다는 떡을 만드는 요리사의 기술만 발전해온 것이 아니었나 싶다.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그분에 대한 레시피만 풍성해졌고 그러다 만난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그동안 소개된 다양한 레시피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되면 서 갑자기 교회의 식탁은 정작 빵 없는 식탁이 되어버린 것만 같다.

최근 영화 '밥정'과 '더 먹고 가라'는 힐링담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임지호 셰프와 나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터뷰 대화가 '생명의 떡과 오버랩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레시피는 필요 없어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궁이라는 기가 막힌 궁전에서 태어난 귀한 황제잖아요. 요리사는 그분에게 밥해주는 온전한 도구예요. 그들이 밥 먹자고 예약하면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로 와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일체예요. 한 몸." 복음을 모를 임 셰프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분이 내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하나님(聯合)의 복음을 임 셰프가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도구가 좋다. 나쁘다도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비장의 레시피가 아니라 5가지 덕목입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둘째, 게으름을 버린다. 셋째, 허영심을 버린다. 넷째, 평상심을 유지한다. 다섯째, 매의 눈을 가진다. 재료를 보고 만들 때 매섭게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데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달려온 130여년은 어떠했을까? 임 셰프가 제시한 5가지 덕목은 한국교회 초기, 초창기 교인들에게 가르친 신앙덕목과 유사하다. 돌이켜 살펴보면 한국교회 초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직한 것과 직통했고, 교회는 세상이 사는 모습과 다른 삶이 있는 곳으로 세상에 인식되었었다. 그런데 굳이 돌아보면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작금의 한국 기독교가 썩었다는 말에 교회는 무어라 항변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진짜 떡'이야기가 아니라 '떡 만드는 방법', 즉 허상을 쫓던 신앙이었기에 예수님이 남겨주신 '생명의 떡 이야기'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했고, 강력한 한 방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편치는 기독교신앙의 구조와 시스템, 방향까지 다 허물어뜨렸다.

중국요리, 불란서요리, 한국중요리 레시피 등 세상의 다양한 요리 레시피처럼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레시피가 개발되었던가.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라하면 라면 맛도 기가 막혔고, 그의 레시피는 요리문화의 혁신을 이루었듯이 한국교회도 새롭게 개발되어 발표하는 신앙생활 레시피에 얼마나 열광했었던가. 그 레시피로 만든 식탁의 이름을 부흥이라 부르며 6백만 숫자에서 800만, 일천만, 천이백만으로 숫자를 마구 올려 부르지 않았던가. '밥정'이라는 영화제목이 생각난다. 밥, 그 속에 얼마나 따스함이 있었는지,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깃들었는지 아니 그 속에 있는 엄마. 그런데 한국교회는 고향인 엄마 뱃속 같은 하나님아버지의 품은 오래 전에 잃어버리고 단지 숫자와 사이트 속에 모든 사랑을 물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4면으로 계속)

### 미 5개 주 마리화나 합법화 통과

(1면에서 계속)

두 번째 안건에서는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가 추진했던 보다 엄격한 방안 대신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찬성 74% 대 반대 26%로 통과시켰다.

위 지역들에서는 주 의원들이 합법적인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제화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오리건주의 주민들은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과 같은 약물을 비롯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통제된 물질의 소유를 비범죄화 하

는 안건을 찬성 59% 대 반대 41%로 승인했다. 또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거기에 더해 오리건주와 워싱턴DC의 유권자들은 사이키델릭 버섯 사용 비범죄화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오리건주는 이에 대해 56% 찬성 대 44% 반대표를 기록했다. 워싱턴DC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76%는 찬성 대 24%는 반대했다.

선거일 전까지 11개 주와 워싱턴DC는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고, 22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

용한 상태였다. 2010년 이후 유권자들은 올해 결과를 포함해 마리화나를 일부 합법화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안건을 투표로 승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마리화나 활동가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지속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선거일 전 여론조사는 대중이 이제 그들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갤럽의 또 다른 조사는 70%의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믿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에 실시된 YouGov 조사에서는 54%의 미국인들이 주 기반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공' 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빌라델비아 장로교회(New York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하실 담임목회자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대원(M. Div.)을 졸업하신 분
  - 목사안수 받으신 후 목회 경력(담임/부담임)이 있으신 분
  -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 목사 안수 증명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추천서(목회자 2명)
  - 최근 설교 2편(동영상 또는 음성)
  -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소명) 및 가족 소개서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제출방법**
  - E-mail : sang78us@yahoo.com
  - 우편: 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영삼 목사님
- 제출마감**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분께는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참으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영국의 정신병학자인 하드 필드가 실시한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보통 상태에서 손을 쥐는 힘은 평균 101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약하다'고 암시를 준 후 다시 재어보니 겨우 29파운드밖에 쥐지 못했습니다. 보통 상태 힘의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당신은 강하다'는 암시를 준 후 재어 보았더니 무려 142파운드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체력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상태 때보다 무려 500%나 그 힘이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난 약하다, 난 못한다'는 마음으로 포기하려는 유혹만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난 강하다, 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포기

해 버릴 때보다 다섯 배는 나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기만 하면...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년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꾼은 큰 고기는 마냥 버리고 작은 고기만 챙겼습니다. 소년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고기를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는데... 참지 못한 소년은 그 낚시꾼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작은 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놓아 보내세요?' 그 낚시꾼은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건 우리 집에는 큰 푸라이 팬이 없어서 그렇단다!'

세상에 무지개를 잡겠다는 허황된 마음도 문제입니다. 그

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좁아터진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늘 장대비가 쏟아져도 공작지에 받는 물은 겨우 공작지만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큰 바다는 채워도 채워도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공작지 같은데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근심스러우면 얼굴이 상하게 됩니다(잠15:13). 이 마음이 낮아지면 겸손하다고 하지만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하다고 합니다(잠16:19). 마음은 참고와 같습니다. 그 마음

참고에 선을 많이 쌓아두면 선한 사람이고 그 마음에 악을 쌓아두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눅6:45). 문제는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이 악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주요소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엔진이 깨끗할수록 달리는 힘은 강해집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썩먹는 주범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레야 영력이 강합니다.

kykim47@gmail.com

# 푸/른/초/장

권혁천 목사

(샌프란시스코 상황중앙장로교회)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는 진도 8.3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큰 화재가 발생해서 3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의 80%는 붕괴되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건물에는 강도 높은 내진설계가 요구되었고 건물마다 비상계단이 설치되었다. 1989년 다시 7.1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자는 63명에 불과했고 건물은 대부분 멀쩡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지진이 아르메니아에 일어났는데 2만 명이 사망한 것과 큰 비교가 된다. 앞선 지진은 위기였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위기도 마침내 극복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나라는 의료제도를 정비하고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보면 위기는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나라로, 더 괜찮은 인생으로 변화될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 낼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

본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소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다(창32:28).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어로 사기꾼, 모사꾼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변화를 통해 그는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된다. 후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의 이름이 되기도 했다. 이 놀라운 변화 이후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위기를 제대로 견뎌냈기 때문이다. 우리 위기를 바로 견디어낼 교훈이 여기에 있다. 지금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다. 자랑스럽던 아들들도, 삶의 목적지던 재물과 종들도 없다. 홀로 강가에 남아 천사와 씨름을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20년 외삼촌 집의 종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재산도 넉넉했고, 가족도 제법 수가 되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두려웠다. 야곱은 먼저 정중히 종들을 보내 인사를 했다.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 나온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선물을 보냈다. 그런데 소용이 없다. 야곱이 소유했던 넉넉한 재산도 함께한 사람도 이 위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만나곤 한다. 멀쩡하던 아이가 깔렁깔렁해지거나 오랫동안 헌신해왔던 배우자에게서 냉정한 거절을 경험할 수 있다. 바지 한 벌 잃어버렸다가 수백만 불짜리 소송을 당하고 가게 문을 닫았던 한인 세탁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두려워서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날 갑

자기 중병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중국에 폐렴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년이 지났는데 미국에만 환자는 천만 명, 사망자는 24만 명이 되었다. 전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위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야곱의 사건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환영을 받았다면 그는 과연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위기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때로 벼랑 끝에 서는 경험들을 한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인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위기를 두려워만 하지 말자.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한다.

### 허물을 고백하라

천사가 씨름을 하다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32:26). 야곱은 이미 뼈가 부러졌다. 그래도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아야 변화

의 기회를 잡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중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왜 아내가 변했을까? 왜 남편이 달라졌을까? 수년 동안 나의 잘못된 습관, 태도, 행동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제거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전염병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니 나는 포기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에 위기가 생기며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예배당에 모임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다르지 않다. 미국은 중국을 원망하고 중국은 미국을 비난한다. 애꿎은 불똥은 WHO로 튀기도 한다. 왜 이럴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하면 결코 위기가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여야 한다.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소서.'

###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다. 야곱의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형 에서의 위협이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장 고대하는 응답은 무엇이었을까? 형을 물리쳐주겠다. 형을 이길 군사를 주겠다...

그런데 천사는 전혀 다른 답을 주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창32:28).

그제야 야곱은 천사를 놓아 주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은 이것이 응답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기도였다. 그런데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 분노로 달려온 형과 마주한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도 너한테 저준다' 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던가.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말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지 모른다.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결론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다. 한 나무꾼이 산에 올랐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다. 기도를 시작한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까.' '진짜냐?' '그럼요.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 일도 하겠습니까.' 정말 나무꾼은 그럴 마음이 들었다. 잠시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손을 놓아라.'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이 나무를 놓으라니. 그럼 절벽 아래로 떨어질 텐데. 한참을 생각하다 나무꾼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이젠 우리 이야기다.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한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잘 변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원하신다.

시작은 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순종함으로 서는 것이다.

위기의 시기를 지낸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자. 이 위기가 지난 후에는 훨씬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나야 한다.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hyouk1000@gmail.com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

## 창세기 32장 22-32절

다. 정갈하고 품위있어 보이는 식탁 문화가 아니라 밥 속에 있는 엄마 손맛을 찾아가야 한다. 말씀 속에 알알이 스며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한다. 한겨울 아랫목 이불 속에 자식을 위해 넣어둔 따스한 밥 한 공기 같은 복음의 떡은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직접 만나고 느껴야 한다. 인터뷰에서 질문이 던져졌다. "나물을 무질 때 손아귀에서 삭삭 바람소리 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 과정에서 맛이 일어나는 건가요?" 임 세프가 대답

한다. "시계방향으로 심장의 리듬을 맞춰 힘차게 돌릴 때 좋은 에너지가 생겨요. 손맛이죠. 심장의 울림을 손의 에너지로 전달하는 게 음식이예요." 그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즉 그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 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놓아두고, 그 떡의 모양과 재료와 방법만 말하고 있었는가? 세프가 식재료인 풀잎을 심장리듬

에 맞춰 손바닥으로 비벼대듯이 친히 식재료를 씹는 사람에게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리듬을 맞추어 호흡하며 직접 만나보고 싶다.

신앙레시피는 없다. 아니 신앙레시피라고 따르던 것들을 이젠 버려야 한다.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신앙의 재료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말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온 어머니의 손맛 같은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임을 기억하자.

## 시론

(3면에서 계속) 한국교회는 팬데믹기간을 통해 이제 그 '신앙방법'을 찾아가야 한

## 하나님은 (진물/기술 아님)...

(2면에서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는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되찾는데 도움을 줬다. 사람들은 얼굴은 대면한 교제, 악수, 포옹,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과 나에게 중요하구나"라고 말하는 것 등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형교회, 방송교회 및 온라인

교회의 부상은 어떤 면에서 목자와 양보다 도구와 장비를 더 우선시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9개월 동안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분리는 교회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 진실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신성한 부르심과 사명

을 잃지 않고 기술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회수'나 '스트리밍 시청자'를 얻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너는 내 양을 돌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아직 끝나지 않은 대선경주! 이것이 정치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 시험(Test)인가(이상)

2020년 대선의 결과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직 미정인 대선의 결과과정과 영적 전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10년간 저의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Tvnex.org"가 내건 모토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authority)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중 가장 문명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미국으로 손꼽습니다. 세계 속에서 가장 짧은 24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을 가장 강건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준 법들이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분별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아군과 적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적(enemy)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진짜 적은 누구인지 드러났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2-13).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오해-혹은 달레마-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결혼과 젠더의 선택과 낙태선택도 모두 인권'이지 않느냐? 그런 그들의 생각을 포용하는 것도 이웃사랑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사회,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지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사랑은 '사람'에 대한 것이며, '생각'과 '가치관'은 분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분별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으며, 성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선한 법을 사명발립하는 거의 거짓으로 없애고자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에덴동산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6:12).

1. 정사와 권세(Against the authorities, evil rulers) -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악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창조질서의 원리원칙의 중



대함과 미국의 헌법!

결혼의 정의, 가정의 정의, 생명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한 미국 헌법도 성경의 "창조질서"를 존중하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을 무시하고, 악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정책들을 국가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무관심은 절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아닙니다(롬1:32).

오히려 여러 성경구절을 통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암5:15)라고 확실히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32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적하셨고 녹

17:2-3에선 죄를 짓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6:12).

1. 정사와 권세(Against the authorities, evil rulers) -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 악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 돈의 권력을 쥐고 사탄의 '악'의 전략을 뚫1:32절처럼 자신만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자/손녀들까지 죄를 짓도록 세뇌하고 있습니다.

2.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Against authorities of the unseen world mighty powers in this dark world)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전과 인 주류 미디어(CNN, NBC, ABC, Fox,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등)와 하이테크(Hi-tech) 재력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사회 공산주의로 이끌고 갈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을 만들기 위해 버락 오바마 때부터 더 드러나게 수조억불을 정치적으로 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2019년에 디즈니가 소유주가 된 팩스뉴스(Fox News)까지 포함하여 주

류미디어들은 성급히 조 바이든과 해리스의 승리를 선언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발표를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 헌법은 절대 미디어가 공식적으로 선포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법에 의해 음모론이 아닌 투명성이 전혀 없는 선거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적으로 선거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순간 개표결과와 숫자들과 "수상한 투표"를 증언하는 투표장의 목격자들이 수없이 나오는 이때, 버락 후세인 오바마 때부터 반미, 반기독교 편과 손잡은 주류미디어들의 성급한 발표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예로, 2016년 팩스뉴스를 뺀 나머지 주류미디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NN 같은 곳은 힐러리의 승리를 부정확한 여론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미리 축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순위로 약속한 반기독교 정책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조 바이든이 오늘 발표한 Early Executive Actions들은 트럼프가 펼친 친기독교 정책을 다시 다 무효화하고 오바마의 정책들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두개만 나옵니다.

▲트럼프가 ISIS 테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금지했던 "Major(과격) 무슬림국가"에서 오는 무슬림들을 다시 받기 시작할 것.

▲트럼프가 막은 무분별한 모든 낙태들을 허용하고, 오바마가 Planned Parenthood(PP) 낙태 대기업에 줬던 납세자 세금의 자금들을 트럼프가 막은 것도 앞으로 다시 PP에게 줄 것.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로마 네로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심한 핍박을 한 것은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네로 이후에 자신을 신격화하고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한 황제와 Q 핍박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A: 네로 황제의 핍박이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의 뒤를 이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 15년간(AD81-96)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네로 이후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황제였습니다. 그를 로마 역사가들은 신격화를 고집했던 독재 군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신들과 전통을 존경하여 이를 재건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거부로 인해 자기의 꿈이 좌절되자 그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자신을 높여 "주(主)이자 하나님(Lord and god)으로 불려줄 것을 요구했고 수도 로마에 금은 흉상을 만들어 자기를 숭배케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요구했고 그들이 이를 거부하자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처럼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하자 로마정부는 그들을 무신론자로 여겼고 국가종교를 혼란케 하는 불순분자로 취급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로 인해 로마의 모든 신이 노했다고 주장하여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맹수와 결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촌동생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그의 아내 플라비스 도미틸라를 수금하고 처형하였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예수의 제자 사도요한을 밧모섬에 유배시키고 예수의 친척을 소환하여 취조하였습니다.

### 네로 이후 도미티안, 트라야니 기독교인 심하게 핍박

그 다음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황제는 트라야니(Trajan, 98-117)황제입니다. 그는 자칭 최선의 원수라고 칭송하고 황제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던 그는 기독교를 비밀결사대라고 오해하고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다고 박해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고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해로운 단체로 지목되어 합법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는데 만약 발각되면 맹수의 밥이 되도록 던져졌다고 합니다. 총독 풀리니는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가 악악하고 터무니없는 미신이지만 은밀한 범죄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을 좇아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여기며 찬미했으며 독독질과 강도질과 배교와 음행을 삼가자 서약함으로 그들을 결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짐사라고 하는 두 하인을 잡아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미신이라는 것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 120세의 시므온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안디옥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 유행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었고 소지무스와 루포스도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외딴 곳에서 자주 만나고 처음 만날 때는 서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암호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인 암호가 "예수 그리스도(Xριστος), 하나님(θεος), 아들(Yιους), 구세주(σωτηρ)"의 첫 머리 글자를 인용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그 뜻이 "물고기(ΙΧΘΥΣ)"라는 글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525-7767, HP: (01)7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무실)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2)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ichn.org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촌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520 17길 (잠실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ichn.org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2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길 50-1 www.anamj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월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철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네시아의 세카유(SEKAYU)

세카유족들은 인도네시아 남 수마트라 도성 전체에 걸쳐 흩어져 살고 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수마트라 섬은 엄청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경제적인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세카유(Sekayu)란 이름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앉았던 긴 옷감을 뜻한다. 그 옷감의 길이 단위가 세카유(a sekayu)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 위치해 3천마일정도 적도를 따라 뻗어있는 1만7천개가 넘는 섬들로 된 동남아시아 군도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면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신도들; 역자 주)이 많은 나라다. 6백 개 이상 서로 다른 인종들이 모인 다양한 부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무시(Musi) 강에서 홍수가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세카유는 수도인 팔렘방(Palembang)으로부터 다소 고립돼 있다. 이런 고립으로 말미암아 지방 사투리와, 발음, 그리고 독특한 어휘가 발전했다.

#### 삶의 모습

대부분의 세카유족은 농업, 임업, 수렵, 어업, 교통, 건축과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 도시에서 영업사원, 상가점원, 공장 노동자, 기술직으로 일하는 세카유 부족의 수가 늘고 있다.

세카유족들은 무시(Musi)강 유역 물이 가까운 곳에 주로 집을 짓는다. 이 강의 강한 물줄기는 벵글루(Bengkulu) 도 성내 서쪽으로 350km 떨어진 부킷 바리산(Bukit Barisan) 산맥의 고원 강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골지역의 세카유 말레이(Sekayu Malay) 가족은 물이건 땅이건 말뚝위에 집을 짓는다. 모든 세카유 촌락은 이슬람식 예배당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촌락에 이슬람사원(mosque)이나 작은 기도 방들이 있으며 드물게 종교 교육센터도 있다.

세카유족들은 남섬 중심의 가부장제인데 아내는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유지하는 책임을 갖는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남아를 선호한다. 실제

로, 양가의 조부모는 그들의 손주(male children) 탄생이 "그들의 입지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인들 중 부기스(Bugis), 미낭카바우(Minangkabau), 자바네(Javanes) 족들과는 달리 세카유족들은 그들의 본토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적 경향의 사람들은 보다 잘살아 보려고 동쪽에 있는 수도로 가려하는데 현재 포장된 도로로 세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 신앙

세카유족들은 거의 100% 무슬림이고 강하고 헌신적인 이슬람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하루 5번 이슬람의 거룩한 땅 메카를 향해 무릎

꿎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말라이(Malay) 종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occult)와 정령숭배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들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점을 보고 사랑하던 고인의 영혼과 접신하고자 할 때 두쿤(Dukun, 또는 점쟁이, soothsayer)을 찾아가기도 한다.

세카유족들은 자신들이 다른 인도네시아종족들보다 더욱 헌신적인 무슬림들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세카유족들은 다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 기도하는 것에 반대 자신들은 죽은 영혼들을 위해 알라신에게 기도함으로써 그 죽은 영혼들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며 죄를 알라에게 직접 고백함으로써

서 구원받아 천국간다고 믿고 있다(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인도와 자바에서 유래한 힌두교와 정령숭배 영향 때문이라고 여긴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세카유족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는 인도네시아 타 지역 종족들과 유사하다. 젊은이들은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세카유족들은 재정적 기회는 거의 없지만 경제적 잠재력은 대단하다. 그들은 교육과 적합한 기술력, 기초기술훈련 그리고 보람 있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광대한 수마트라섬의 자원들이 개발되고 이제껏 의존적인 인프라가 발전되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와 삶을 지배하는 사교(occult)와 관료주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선거결과 상관없이 하나됨 위해 기도하자'

미국 대선에 대한 양상을 띄는 가운데 4일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교도선교회 찰스 콜슨이 설립한 브레이크 포인트 존 스톤스트리트 대표는 "이번 대선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다. 그 결과도 가장 논쟁적일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 아래서 신앙과 정치권력의 평화를 상실한다면 백악관에 누가 들어와도 그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스톤스트리트 대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하나 됨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 됨을 이룬다면 그의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 하나 됨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0여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성경적 평화를 위한 2020 요청: 폭력과 분열에 대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성명'을 발표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명에서 "수사학적으로 특정 종교·인종·정치 집단을 표적 삼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분열적인 선거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거부한다. 신앙을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를 추구하며 정치적 당파와 사회적 분열을 넘어 복음을 실천하자"며 "평화를 유지하는 자원을 넘어 평화를 중재하는 자가 되어 한다"고 촉구했다.

토니 에반스 목사는 "어느 때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단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과 미국에 치유가 임하는 것,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평화, 조화가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도 "우리 vs 그들의 정치에서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시대로 변화되는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는 맥스 루케이도(오크힐스교회), 토니 에반스(오크트리프바이블펠로우십교회), 러셀 무어(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 회장), AR 버나드(뉴욕 브루클린 기독교문화센터), 케네스 우메르(페이스폴센트럴바이블교회) 목사 등이 참여했다.

#### 이 영화보고 미 9개 주가 낙태반대법안 도입

여성들의 낙태를 돕던 클리닉 책임자에서 낙태반대 운동가로 180도 다른 인생을 선택한 에비 존슨의 실화를 그린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다음 달 한국에서 개봉된다.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열정으로 가족계획연맹에 입사한 존슨은 2만2000명 이상의 낙태 시술에 관여했다. 그러나 2년 8개월 만에 처음 들어간 수술실에서 낙태현장을 목격한 뒤 큰 충격을 받고 생명운동가의 삶을 시작한다. 영화는 신념의 변화를 겪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법적 논란에 앞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신을 죽지 않았다' '신을 믿습니까?'를 제작한 척 콘젤만, 캐리 솔로몬이 연합해 만든 이 영화는 지난해 3월 미국 개봉 당시 첫 주에 제작비를 회수하고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며 기독교 영화 흥행순위 3위에 올랐다. 이 영화를 계기로 미국 9개 주에서 낙태반대 법안을 도입했고 500명 이상의 낙태업계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명 수호의 길로 나서는 등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이 일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처럼 힘 있는 이야기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생명의 신성함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화를 수입한 박혜영 달빛광장 대표는 4일 "현재 한국에서 낙태 이슈가 민감한 상황이지만, 낙태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낙태 시술 과정, 낙태 부작용 등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다"며 "영화를 통해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 미국 대면예배 참석 성도수 아직은...

최근 미국교회 10곳 중 9곳이 대면예배를 재개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최근 미국 목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9월 현재 대면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조사결과(71%)에 비해 1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 평균 예배 참석자가 '250명 이상'이라고 답한 목회자는 20%였지만 9월에는 6%에 그쳤다. '100-249명'이라는 응답도 35%에서 22%로 감소했다. 반면 예배 참석자가 '50-99명'이었다는 응답은 28%에서 34%로 늘었고, '49명 이하'는 17%에서 38%로 대폭 증가했다.

스콧 매킨셀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미국 교회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방법은 찾았지만, 코로나 확산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도도 많기 때문에 출석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교회가 지역 내 작은 교회와 협력해 코로나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교회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응답도 눈길을 끌었다. '교회 건축 등 대규모 예산 집행을 연기했다'(1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웃리치 주일학교 등 사역 부서 폐지'(8%) '교직원 급여나 복리후생비 삭감'(6%) '교직원 감축'(6%) '교단 분담금 삭감'(6%) '선교활동 지원 중단'(5%) 등이 뒤를 이었다.

매킨셀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은 사역 현장에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목회

자들은 중단되거나 위축된 목회 활동과 교회 사역이 곧 재개되길 바라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 시대 속 사역을 위해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4%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기도의 날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진행하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기도의 날(IDOP) 2020'에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동참해 달라고 4일 요청했다.



WEA 종교자유위원회는 1996년부터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매년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주일을 국제 기독교단체들과 연합해 기도하는 날로 지켰다. 각 교회와 단체가 자발적으로 IDOP 예배를 드리면서 전 세계 박해 현장을 나누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WEA 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인구는 2억6000만명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10%다. 한국VOM은 올해도 하루 평균 8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10명의 기독교인이 구금되거나 투옥됐다고 전했다.

한국 VOM은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자넷: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집을 버리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담긴 내년도 무료 기도달력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속 풀이 한국 VOM 대표는 "예수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학대를 받으면 우리가 학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히 13:3)고 명령하셨다"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해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 푸에르토리코 주민 과반 "美 편입찬성"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 편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 3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지사 선거와 함께 열린 미국 주 편입에 대해 묻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52% 이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대에 표를 던진 주민 비율은 48% 안팎이었다.

미 연방 하원의 푸에르토리코 대표인 제니퍼 곤잘레스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평등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푸에르토리코는 자치령 지위에 지쳤다는 것을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320만명의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지만 주는 아닌 애매한 위치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미국 선거에 투표권이 없고 미 연방 하원의 푸에르토리코 상주대표도 표결권을 없다.

이 때문에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꾸준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거나 독립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주 편입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만 1967년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전 2017년 투표에서는 미국 주가 되자는 의견이 90%를 넘었지만 독립과 등 반대파들의 보이콧으로 20%대 저조한 투표율에 그쳤다. 이번 투표는 보이콧 없이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주가 되기 위해선 미 연방 의회가 나서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은 적이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예방률 90%"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9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백신을 처음으로 투여한 때로부터 28일 뒤, 두 번째로 맞은 날로부터 7일 뒤에 나타났다. 다만 임상시험 예정인 참가자가 약 4만4000명 남아있으며 시험을 진행하면서 예방률 수치가 변할 수 있다고 화이자는 설명했다. 임상시험 대상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없었다.

화이자 의약개발팀 빌 그루버 박사는 "어쩌면 희망을 깨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팬데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뜻깊은 날"이라고 전했다.

화이자는 이날 말 미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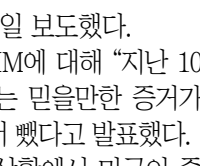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의 성과 소식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중시 크게 상송, 백신 곧 나올 예정, 90% 효과 보고, 정말 대단한 뉴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획기적 발전을 돕고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를 주는 훌륭한 여성과 남성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바이든은 "대단한 뉴스이지만 그것이 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려면 몇 달이나 남아있다.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시진핑, 미 위구르족 분리지체 테러지정제에 '공평'

미국이 위구르족 분리지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중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 ETIM에 대해 "지난 10여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테러단체 목록에서 뺐다고 발표했다.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눈엣가시인 위구르족 분리지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앞서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직후 ETIM이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편에서 미군과 싸우고 있다며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수용 또는 거부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전통은 세월을 걸쳐 축적된 결과물로서, 후대의 관습과 가치체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감정적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의 예배는 열정적이다.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진행된다. 성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반면에 지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의 예배는 정적이다. 아멘 소리나 박수치는 것을 꺼려한다. 이 외에도 제자훈련, 해외선교, 자선사업, 정치참여, 지역사회봉사 등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경우도 있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 개척되었고, 개척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성향을 지녔었는지가 전통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회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수용하고 유지하여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시대가 변화하고 성도들의 성향과 목회 방향이 달라지면, 과거 전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아예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변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 전통에 담겨있는 유익한 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생겨나거나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 교회가 함께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전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란 세상이 크게 바뀌어도 진리 자체로 남아있다. 각 시대마다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축적해온 내용물이다. 지역 교회의 전통은 수용 또는 거부가 가능하지만, 지난 2천년을 역사가 후대 교회에 전사하는 소중한 영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경과 교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 속에서 성장해왔다. 초기부터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시종일관하게 '성경중심'이 강조된 결과이다. 주일에 성도들은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몇 시간동안 성경을 배우는 일에 매진하였다. 현재에도 '수요예배'와 '구역모임'을 '수요성경공부'와 '구역성경공부'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토록 초창기부터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인들을 배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의문점이 남아있다. 성경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여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시켜 거짓 이론을 그럴싸하게 전개한다.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철저히 왜곡한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지만 잘못된 이단사상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역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망과 저주 아래 놓였던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과 구원을 받은 뒤 주

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강조하여왔다. 그러나 성도의 감정과 비교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 믿음의 내용이 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그 분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지정의 3부인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교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동시에 영적 성장을 가능

교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선배들이 걸어왔던 성경적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우리 후배 신앙인들에게 교회가 지녀야 할 신앙적 전통의 가치와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고백서

신앙은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

이시며,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시었으며,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믿나이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부활을 믿나이까?

서방 교회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공인한 것은 8세기의 일이다. 그럼에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록 그들이 작성하지 않았어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순수한 신앙의 진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초대교회 변증가들과 교부들도 짧고 정교한 신경들과 간단한 문답형 교육지침서들을 작성하였다. 이그나시우스(35-110), 순교자 저스틴(100-165), 이레니우스(130-20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5-216), 터툴리안(160-220), 오리겐(185-254) 등이다. 그들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것인데, 훗날 사도신경 작성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신경은 특정한 또는 종교회의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전통의 산물인 것이다.

교회에서 실시되는 세례교육 과정에 사도신경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있다. 이는 세례자에게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던 초대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에 비교해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매우 중대한 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결단하였음을 외적 의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 313년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기 전까지 로마황제들의 핍박이 지속되었다. 54년 네로황제로부터 시작하여 249년까지 산발적이었으나, 데시우스 황제로부터 본격적 박해가 자행되어 하루에 수천 명이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한다는 외적선언은 자신이 순교까지라도 감당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세례는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전적으로 바치겠다는 표시였다.

형식주의

요즘 예배에서 사도신경이 사라지고 있다.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닐 것이다.

(9면으로 계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4)

교회사가 가르친다!(11)-고백하는 신앙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해야 할 경건한 믿음의 삶의 내용을 제시한다.

성경 66권의 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구약과 신약은 물론 그리고 각 권이 일맥상통하기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

하게 한다.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차가운 교조주의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교리가 빠져버린 신앙은, 매우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성향을 지니게 한다.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 낳는 영적 폐해는 매우 크다.

었다. 이는 그 당시 예수의 기적을 보고 메시지를 높이 평가하였지만 예수를 인간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말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베드로의 답변은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신앙고백이었다.

성경이해에 필수인 교리는 신앙인 정체성 확립시켜주며 영적성장 가능케 지정의가 조화이룰 때 건강한 신앙소유... 형식적인 신앙고백 하지 말아야

로 내적인 체계 즉 '교리'를 발견하게 된다. 교리란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도들은 교리를 믿음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을 갖게 된다.

무관심

한국교회는 교리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다.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교리보다 성경을 강조하였기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교리가 신앙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

교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후대 교회에 건네준 영적 유산이다. 각 시대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담겨있는 진리를 찾아낸 것이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 이단이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큰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때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교회는 그가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임을 선언하였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당시 교회가 결정한 기독교를 정통 교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

교회는 주일예배 또는 공적모임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쉽게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의 기본교리가 핵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장구한 세월동안 신앙인들이 이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바쳐왔다.

사도신경은 제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세례자 교육을 위해 2세기 말에 나타난 '구 로마신경(Old Roman Creed)'가 작성되었는데, 후에 사도신경의 모체가 된 문서이다. 215년경 히폴리투스(170-236)에 의해 작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전능의 주재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나이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t lists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 리더십 코멘터리 (123)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네트워크시대에 교회의 위기는 기회인가?

### 네트워크의 연혁

지금 우리는 네트워크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고 우리는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다.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단순히 인터넷 인프라와 사회연결망인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서 세상의 문화흐름과 사람들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바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고 싶다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네트워크의 개념은 뜻밖에도 의학(medicine)에서 출발했다. 네트워크란 말은 16세기 이전에는 그물모양이나 여자들의 머리에 쓰는 그물로 된 장식의 레이싱장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17세기에 피부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의학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근대적인

가을 미래의 모습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은 사람은 물론 사물들까지 모두 사이버로 연결한다. 이렇게 사이버로 연결된 세상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이재철 목사(전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가 유튜브 채널 잘잘법(잘 믿고 잘 사는 법) 영상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알아야 새 시대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며 "기독교 2천년 역사상 경험한 적 없는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다.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가두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리더 자신이다. 바람직한 리더의 유형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리더이다. 그리고 리더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란 살아있는 생물조직체처럼 오랜 세월동안 견디고 적응하고 인식하고 창조적인 과정을 겪어야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택트 시대의 리더십의 역할

협력, 보살핌, 관대함을 실천하는 리더는 수명이 길다. 언택트(untact) 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맺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는 말만 하는 겉셈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너무 성급하게 단기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모든 사람들과 다시 생각해보고, 공동체를 다시 디자인해보고, 시대흐름에 맞는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공동으로 일하고 협력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리더십은 영적인 일이다. 또한 국경과 공간적 거리가 없어지고 가치 역할, 규칙들이 점점 똑같이 되어가는 정보화 시대에 리더십은 공동체의 생존도구이다. 탁월한 리더는 과거를 해

## 불확실한 시대 리더십은 영적인 일, 공동체의 생존도구 열린 마인드와 자세로 네트워크 통해 소통해 성장발전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네트워크는 순환(circulation)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학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이때부터 "형태를 형성하고, 확장하고 확대되며, 보이지 않는(imperceptible), 수많은(보이지)조직으로 구성된" 개체로 인식되었다.

### Network is connection

네트워크는 연결이다. 연결은 고립과 단절의 반대말이다. 연결이 없으면 네트워크란 존재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을 연결하고 가깝게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연결성은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속성이 된다.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는 '연결이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사회는 언택트(untact) 사회로 전환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대면 사회의 등장을 앞당겼다. 비대면 사회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협업을 하는 사회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다

신 분이다. 영적리더는 시대변화에 둔감한 마음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성경적인 관찰과 해석으로 코로나팬데믹 현상이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기회인지를 규명해 새로운 세계질서와 새 시대의 서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 Network is open

네트워크는 열려있다. 연결은 하나의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고 고정된 출발점이나 종착점이 없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가 쉽게 연결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리더는 네트워크의 열린 속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마음을 닫으면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불행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열린 마인드와 자세를 가진 리더의 생각과 삶은 다르다. 사람들을 일정한 규범과 프레임 안에

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창안해야 한다. 의견이 다를 때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영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래사회를 이끌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은 사명감, 공동체 의식, 배움을 통해 나온다. 지금 리더로서 중요한 일은 듣는 일이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라고 종교만 하려거나 학식이 더 높다고 자만하지 않고 중간에 말을 막지 말고 참음성 있게 들을 때 듣는 힘이 생긴다. 인내심 있게 들을 줄 알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 듣는 힘이 생긴다.

네트워크 속성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 리더는 영적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sondongwon@gmail.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 떠나는 연습

올 가을에는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유난히 많았다. 인명피해도 있었고 대기가 오염되어 한동안 하늘이 뿌연 가을을 보냈다. 몇 주 전 남가주얼바인 지역과 요바린다에서 또 산불이 났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아침, 그 강풍을 타고 갑작스러운 산불이 얼바인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심 명명이 대피해야 했다. 산불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를 거의 마칠 무렵에 갑자기 전화 비상 알람이 울리면서 우리 동네 쪽으로도 산불 위험이 있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우리 집은 얼바인에서 45분 정도 거리에 있지만 집과 가까운 요바린다에도 산불이 나면서 우리 동네 쪽으로 불길기 번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대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급하게 수업을 중단했다.

지진의 가능성이 높은 남가주에 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 평소 생각해 왔었다. 막상 지진이 나면 뛰어나가기도 바쁘겠지만 혹시 무엇을 가지고 나갈 여유가 있다면 모든 자료가 들어 있는 컴퓨터와 연락을 위한 휴대폰, 여권,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진이 아닌 산불로 갑자기 대피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이다. 짧은 시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미리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집에 불에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꼭 가져가야 할 것이 많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학교가 대여해준 작업용 컴퓨터,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해야 하는데 등과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는 나를 위해 친구 목사님 부부가 올해 생일선물로 사주신 좋은 의자, 이번 초가를 산불로 공기 오염이 심해서 거금을 들여 산 공기정화기, 그 정도였다. 컴퓨터는 우선순위로 챙겼지만 부피가 큰 의자나 공기 정화기는 차에 싣고 갈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동안 바쁘게 산다는 핑계 아래 정리하지 못한 채 쌓여 있던 옛날 앨범, 박스에 담아 놓았던 가족사진들이었다. 세 아이들의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는 삶의 기억들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서류 가방 두 개가 꼭 차도록 사진들을 챙겼다. 대피 명령이 내리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한 채 기다리는 동안 밤이 되었다. 짐을 챙기느라 지쳐서 그랬는지 불안한 마음도 없이 잠을 잘 잤다. 감사하게도 불길이 주택가를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이를 후에 대피준비령이 해제되었다. 짐을 차에서 다시 꺼내 정리하고 나니 몸살기가 왔다. 급하게 물건을 챙기고 후시라도 불길기가 끼이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느라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산불로 인한 작은 소동을 벌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본 것 같았다.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가볍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준비할 시간이 있는 죽음을 맞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삶을 정리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이제 그만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컴퓨터와 사진도 아닐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랑했던 기록들만 지니고 떠나야 한다. 또한 내가 떠날 자리에 남겨 놓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했던 자취일 것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산불 덕분에 약식이지만 떠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잠시 대피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분향으로 부르실 때 호출 될고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일교회: 오전 1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말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4호교로입장소)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예)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일교회: 오전 11: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토요새벽예배: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흠뻑 있는 우리의 등 속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배스 건물),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27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말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4호교로입장소)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베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예)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예예배: 오전 9:15, 11:30 영예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kbc.org / www.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가족원</b>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교회 협동목사 신사역: (월-금) 오전 9:45(분당) 사제대: 2. 위임사제 사제: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제나 3. 할말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계기도전도: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새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강화: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g.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예)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org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 배 : 오전 9:45(10월)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 '이성인이 되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생각의 폭이 넓은 성도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계절의 변화는 때로 우리에게 단조로운 삶이 아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봄과 여름동안 푸른 나뭇잎을 보다가 가을에 나뭇잎의 색이 변화되는 단풍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과 기분을 가지게 됩니다.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10월 중순에 맘모스와 비숍 지역을 갔습니다. 약간 이른 감이 있었지만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단풍나무인 사시나무의 나뭇잎들이 노란색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화된 사시나무 잎사귀들을 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나에게는 나름대로 계절의 변화와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노란 단풍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일행 중에 어떤 분은 저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부지역과 스모키마운틴, 한국의 설악산이나 내장산에서 보던 알록달록한 단풍에 익숙해 있던 분에게 캘리포니아의 단풍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를 못하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갈색, 노란색 등으로 화려하게 섞여 변화된

단풍을 기대하던 사람에게 거의 노란색으로만 물들여 버린 단풍의 광경은 화려함이 아닌 단조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적으로 부드럽고 넓은 잎으로 햇빛을 많이 받아 적응하는 낙엽 활엽수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조에 강한 바늘잎 모양의 침엽수들이 자라는 환경입니다. 다양한 단풍을 구경할 수 없는 단풍이 대부분인 캘리포니아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사시나무의 단풍을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단풍 구경이라는 설레임을 가지게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동부의 단풍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의 단풍은 아마도 단풍으로 다가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풍은 알록달록한 색들로 가득찬 광경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특별한 지역적 상황

고려한다면 캘리포니아의 노란색 단풍은 이해가 되고 새로운 단풍의 특이함을 느끼는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은 돈으로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때로 나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

실을 한 번 쬐는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생각이 폭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절대화하고, 아집과 고집과 교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직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 말 못할 상황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yosupbois@hotmail.com



KAPC 청교도 이민 400주년 웨비나 첫날 강의가 온라인고투미팅을 통해 열렸다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꿈꾸던 교회’ KAPC 청교도 이민 400주년 웨비나, 강사 조영천 목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청교도 이민 400주년 웨비나가 9일 오후 5시(서부시간, 동부시간 8시)에 열렸다.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꿈꾸던 교회' 주제로 조영천 목사(아틀란타 새교회 담임)를 강사로 진행했다. 조문휘 총회장 인사말이 있던 후 김성일 목사(장흥로) 조영천 목사(교육부장)기도 후 시작됐다. 조영천 목사는 "필그림으로 불렸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정착했다"며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안에 머물며 점진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그룹과 영국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분리해서 따로 교회를 세운 급진적 그룹이 있다.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자들은 급진적 청교도들"이라 설명했다. 조 목사는 "청교도들은 영국

을 떠나 1607년 네덜란드 레이덴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주일성수 신앙의 철저함이 떨어졌고 자녀들이 영어를 잊고 네덜란드 문화에 젖어버리는 등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됐다"며 "뉴잉글랜드 케이프코드로 이주한 뒤 추위와 질병으로 사망자가 증가해 50여명만이 생존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621년 11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630년대 청교도들의 대대적인 이주가 있었으며 이는 대이주시대라 칭한다.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교회를 세웠는데 특징으로는 △교회의 멤버십 강화(국가교회 시스템이 아닌 자발적인 교회 추구, 교회회원자격으로 회심의 열매가 있어야 함), 철저히 신앙검증을 하지만 신앙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배움의 여지, 순종할 자제를 함께 검증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차이점을 줄이고자 했으며 △신앙고백이 일치하는 공동체를 추구했다.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글 가르치기를 의무화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1648년에는 '자녀들을 위한 교리문답'을 의무화 했다. 또 그들은 교회와 정치를 구분해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자체적으로 권징, 멤버십 가입과 해임을 하게 했다. 조영천 목사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자들이었다"며 "미국에 처음 온 그들의 불안감과 두려움보다 코비드19로 인해 닥친 우리 불안감은 덜할 것이다.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한발씩 한발씩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청교도들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한사람 한사람 신앙을 체크하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려 했고 믿음의 후손에게 잘 전수하려고 몸부림치려 했다"며 "오늘날 교회 앞에 여러 도전이 있다.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설립117주년 감사예배에서 한의준 목사와 당회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설립기념예배로 주일 대면예배 시작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설립117주년 기념예배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설립 117주년 기념주일예배가 8일 예배 시간에 열렸다. 한의준 목사는 "창립 117주년을 맞아 우리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의 능력이 살아있고 복음의 생명이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제단 높이 쌓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며 "코비드19로 대면예배를 하지 못했는데 창립기념예배를 시작으로 대면예배를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회복하고 삶이 믿음으로 능력이운데 살아지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15분에 열린 예배

는 박재원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태원 집사가 성경 봉독했다. 연합찬양대 찬양에 이어 한의준 목사가 '바벨탑이 주는 교훈'(창11: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의준 목사는 "풍부한 운택한 삶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룬 당시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큰성과 탑을 쌓았다. 탑을 건설하는 동기와 목적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하나님이 되고자하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는 과학과 진보의 옷 안에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인본주의의 교만이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인생을 높이 세우신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우리 삶속에 내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다면 바벨탑이 될 수 있다. 바벨탑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 우리의 삶이 바벨이 아닌 연합함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 인정하는 믿음의 제단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한의준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정현경 집사의 가야금 특주를 했다. 이날 예배는 한의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 창립된 해외 최초 한인교회로 이민교회로 자리잡고 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그리스도 제자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다. 홍승하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시작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한의준 목사는 지난 2016년 본 교회에 부임해 22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새소망교회, KAFHI에 3만1천불 지원 지구촌 빈곤아동후원 위한 자선바자회 열어

메릴랜드 컬럼비아에 소재한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가 지난 10월 24일과 31일 두 주간 걸쳐 진행한 자선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기금 3만1천 달러를 국제기아대책 한국본부(KAFHI)에 전달했다.



새소망교회 안인권 목사(오른쪽)가 정승호 사무총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새소망교회는 11월 8일 주일예배 시간에 KAFHI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에게 전달했다. 새소망교회는 지난 10여년간 자선바자회를 통해 국제기아대책, 에코도르 선교지, 지역 선교단체 등을 꾸준히 섬겨왔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사회에 공개 자선바자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헌신을 보였다. 안인권 목사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 생각하고 성도들과 의논했으며, 성도들은 더 열심과 희생적으로 바자회를 마련하고 참여해 200%의 풍성한 자선바자회 모금을 마련했다.

안인권 목사는 "이 구제현금은 1000명의 아이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다. 가난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한 새소망 성도들의 마음과 열정과 희생의 결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한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새소망교회는 11월 15일까지 자선바자회를 연장해 에코도르 선교지의 구제선교를 위한 모금을 마련 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승호 목사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빌립보서 1장 3-6절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빈곤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KAFHI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로 2020년도에 예정된 후원모금행사, FH Sunday, 선교훈련, 현장단기선교 등 대면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해 4개월에 걸쳐 대륙을 횡단 중이며 12월 24일 영상자선음악회를 LA Youth 필하모닉과 진행하며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2020년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락처: (703)473-4696 shchung@fh.org (기사제공: KAFHI)

한국어 투표용지 오류 문제 해결 도와 한미연합회, 지속적인 한인커뮤니티 옹호활동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 송)는 지난 3월 예비선거 기간 중 배포됐던 샘플 투표용지 중 1,098개의 한국어 샘플 투표용지(10지구)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부재자 투표 실명서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여러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함께 LA카운티 등 기등록국/사무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딘 로건(Dean C. Logan,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시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준비 과정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미연합회는 이러한 지역사회 옹호활동으로 (1)더욱더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오류가 없는 한국어 투표용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11월

가 저술한 '기독교 강요'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백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개혁주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백적 신앙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츠빙글리의 67개 조항(1523), 베른신조(1528), 제1 스위스신앙고백(1536), 프랑스 신앙고백(1559),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문답서(1563), 제2 스위스신앙고백(1566),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1647) 등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질문과 답'의 형식의 교리교육을 위한 문답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선거일 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한국어 샘플 투표용지와 유권자 안내서를 포함한 선거자료들이 조기 배송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미연합회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한국어 투표용지가 문제없이 발송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과정에서 LA카운티 등기등록국/사무국과 긴밀히 협업했으며, 그 결과 이전 선거에 비해 몇 주 앞선 10월 5일에 한국어 투표용지가 문제없이 발송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고백적 신앙에 대한 이해 부족, 사도신경이 가톨릭의 것이라는 음모론, 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이유일 수도 있다.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고백적 신앙'을 무시하는 경건주의운동이 일어났다. 교회가 전수받은 고백신앙의 전통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성종교로 전향시켰다. 사도신경에 담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하는 사도신경을 고백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별 생각 없이 형식의 틀에 박혀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외우

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다. 한 글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시작하여 중간에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I believe in..."으로 시작하는 영어번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분명히 안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결코 형식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교리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도신경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등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시대는 과거와 같이 신앙인들에게 순교를 각오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영적 유산을 기억하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드렸던 신앙고백의 전통을 이어가자. "나"와 동일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드리는 신앙고백을 크게 기뻐하신다. covenantcho@yahoo.com



# 교계 기사판

## 뉴욕교협 47회기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제 47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제35대 이사장 이취임식과 시무예배가 11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총무 한기술 목사 646-520-7667 서기 박시훈 목사

▲문의: (718)279-1414

## '2020 온라인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하는 '밀알의 밤'이 11월 26일(목)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스트립 방송으로 열린다. 주제는 '감사함으로(Give Thanks, 시136)' 4가지 컨텐츠로 진행된다. △1부: 이지선 교수의 메시지 2부: 남가주밀알 수어찬양팀의 수어 공연 △3부: 장애인 장학생 미니 다큐 △4부: 로컬 찬양팀 찬양 인도.

▲문의: (562)229-0001

##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포럼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포럼이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EM 예배실에서 열린다.

▲문의: (213)384-5232

## 오렌지한인교회 가을특별세미나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가 가을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은혜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 강사는 변명혜 교수(아주사과시픽대학교)이며 일정은 11월 14일(토), 21일(토) 오전 9시이며 줌 화상모임으로 진행된다.

▲문의: (714)871-8320

## 인랜드교회 가정세미나

인랜드교회(담임 안한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과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가정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이진아 전도사(베델한인교회 교회학교 디렉터, CGNTV 심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강사)이며 일정은 14일(토) 오전10시이다. 세미나는 줌미팅을 통해 진행된다.

▲ 문의: (909)622-2324

##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노보산 특세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온라인 노보산 특별세번기도회를 '고통을 감사로 고백할 때'라는 주제로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갖는다. 시산은 월-금 오전 5시30분, 토 오전 6시

▲문의: (858)279-9191

## 김해중 목사 별세

김해중 목사(사진)가 11월 3일 오후 4시23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5세. 김 목사는 지병으로 호스피스케어를 받아 왔다.

김해중 목사는 감신대를 나와 오하이오 감리교신학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드류대학교에서 석사신학, 종교사회학, 목회학,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해중 목사는 1963년 UMC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국교회에서 사역하다, 1972년 뉴저지연합교회를 설립, 84년까지 목회했으며, 한인 최초로 미연합감리교회(UMC) 감독으로 선출돼 12년

(1992-2004) 동안 사역하다 은퇴했다. 1978년 뉴욕교협 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뉴욕교협 로고를 만들었다.

장례예배는 11월 7일 오전 10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렸으며 조지 워싱턴 기념공원에서 하관예배 후 안장됐다.

유족으로는 고 박화세 사모(지난 9월 소천) 사이에 2남(김유진, 김유선 목사)과 1녀(김유미)가 있다.



(유원정 기자)

# 뉴욕목사회 정부회장 후보 확정

회장 김진화 목사, 부회장 이재덕 목사, 마바울 목사

뉴욕한인목사회가 제49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장 및 부회장 임후보 등록을 받고 11월 4일에는 서류심사 후 후보를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심사에 앞서 열린 경건회에서 정순원 목사는 출애굽기 18:21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능력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불의한 이익에 깨끗한 사람"을 교계 리더의 덕목으로 강조했다.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이며 부회장 후보는 경선으로, 이날 제비뽑기를 통해 1번 이재덕 목



뉴욕목사회 후보자들. 왼쪽부터 부회장후보 이재덕 목사, 회장후보 김진화 목사, 부회장후보 마바울 목사.

사(뉴욕사랑의교회), 2번엔 마바울 목사(퀸즈성령강림교회)가 확정됐다.

서류심사 후 후보들은 선거운동 세칙을 확인하는 사인을



뉴욕교협 이사회 제34회 정기총회가 9일 오후 6시 거성식당에서 열렸다.

##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고백 있길"

뉴욕교협이사회 제34회 정기총회, 이사장 이춘범 장로

뉴욕교협 이사회 제34회 정기총회가 9일 오후 6시 거성식당에서 열려 신입 이사장에 이춘범 장로가 선출됐다.

이춘범 장로(뉴욕우리교회 은퇴)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환경이 변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며 "여성과 젊은 이사들을 영입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손성대 장로가 수입 14,077달러, 지출 13,481달러, 잔액 596달러로 보고했으며, 이광도 장로는 회계보고를 통해 신년하례 2,237달러, 할렐루야대회 3,700달러, 부활절 750달러, 교협 현금지원 5000달러 등 다양하게 교협사업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년하례 때는 5천달러 상당의 상품을 500여개의 선물바구니로 만들어 제공했다.

신임이사로 신만우 장로(뉴

욕효신장로교회)와 흥남나 권사(하국교회)를 인준했다.

이어진 임원선출 순서를 통해 부이사장 이춘범 장로를 만장일치 박수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춘범 장로는 1973년 이민 와 초대 교협회장인 한영교 목사와 롱아일랜드한인연합교회를 개척했으며, 1980년 뉴욕우리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았다. 또 뉴욕교협 초기에 회계로 섬긴 바 있다.

나머지 임원은 신입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에게 임명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춘범 장로 인도로 기도 이보춘 장로(부이사장),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교협 부회장), 설교 문석호 목사(교협 회장), 축도 김희복 목사(교협 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목자"(시23:1-6)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47회기 교협이 이사회의 협력으로 은혜롭게 잘 진행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협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며, 회기를 마칠 때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셨구나'라는 감격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또 팬데믹으로 달라진 예배문화에 대해 언급하며 "'꼭 교회만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다 성전'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에 함정이 있다"며 "가정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전제가 돼야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석호 목사는 또 하나의 문제인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및 신앙의 깊이에 따른 차이를 언급하고 교회 현장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며 "물론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별로 없다. 교회당일 뿐이다. 그러나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지향해야지 유튜브에 설교만 올리면 된다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교협에서는 회장과 부회장 김희복 목사, 총무 한기술 목사, 서기 박시훈 목사, 회계 안경순 목사, 부서기 김희숙 목사, 수석협동총무 권캐더린 목사 등이 참석해 이사회를 격려했다.

(정려: 유원정 기자)

예년과 달리 자유롭게 회원들과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후보 비방, 그리고 별도의 소견발표 및 언론 인터뷰 등은 피하도록 조치했다.

뉴욕목사회 회원들은 11월 14일까지 사전등록을 해야 하지만 총회현장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임장은 받지 않는다.

정기총회는 11월 16일(월)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총회가 끝난 후 20일까지 불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회장 후보 1번 이재덕 목사는 뉴욕교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뉴욕목사회 총무와 서기로 오랫동안 섬겨온 경력을 내세우며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자"임을 강조했다.

2번 마바울 목사는 현 총무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며, 갈수록 이민목회가 힘든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섬기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모임에서 문석호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초청 오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팬데믹 속 뉴욕교계원로 친교자리 마련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증경회장 초청 오찬대접

뉴욕교회협의회 47회기 이취임식과 시무예배(12일)를 앞두고 또 뉴욕목사회는 16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6일 각각 증경회장 및 원로 목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팬데믹으로 모임이 힘든 시기에 선배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가 되라고 당부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일일이 메모하며 교협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 뉴욕목사회

뉴욕목사회는 48회기 마지막 사업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 미즈미 식당에서 증경회장들과 교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대접했다.

목사회는 16일 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팬데믹으로 만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회장 이춘성 목사는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만호 목사의 식사기도 후 친교를 나눴다.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뉴욕교협은 12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오찬을 나누며 회장 문석호 목사가 47회기 교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47회기 교협에 바라는 증경회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증경회장들은 감사스러운 개혁보다는 교협의 아름다운 전통 위에 더욱 발전하는 회기

## 위탁가정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인가정상담소, 12월 1일까지 후원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11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 선물을 구입하고 12월 12일 열리는 온라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캐서린 염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셔서 지난 5년간 위탁가정 아이들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돼줄 바란다"

고 밝혔다.

후원금은 개인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미리 등록된 물품을 선물로 보낼 수도 있다. 문의는 김지나 소설위커(213-235-4867, jinakim@kfamla.org)에게 하면 된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시작해 현재 70여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인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문의는 이미리 홍보담당(213-235-4848)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오덕교 교수가 줌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청교도와 미국, 청교도와 성경" 주제

뉴저지교계연합 청교도ABC 세미나, 강사 오덕교 교수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맞아 뉴저지 교계연합 청교도 세미나가 줌(Zoom) 화상으로 열렸다. Better Together Prayer Movement(뉴저지사모회, 허그미션, 러브뉴저지, 뉴저지연합기도, GUM선교회)가 주관하고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 등이 후원했다.

강사 오덕교 교수는 11월 8일 "청교도와 미국, 청교도와 성경"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교도들은 미국을 피난처로, 선교사역의 중심지로, 약속의 땅으로 보았다. 청교도들이 정지 경계 여러 면에서 삶을 살 때 기초로 삼은 것은 성경이다. 성경의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 했다"며 "청교

도들은 성경을 믿음과 행위의 기준으로 생각했으며, 성경은 하나님나라의 법전으로 생활의 기본이 있어 믿어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일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말씀을 이어갔다.

오 교수는 "모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가톨릭이나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로마가톨릭은 특별계시는 불완전하다고 보며 교회전통을 중시한다. 마틴 루터는 개혁의 모토로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성경에서 금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서 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영적인 은사, 계시나 신비체험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보다 신비체험이 위에 있다"고 말했다.

오덕교 교수는 "신학은 바른 성경해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과 문법적인 배경을 살펴 성경기록 당시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서기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성경을 빠르게 해석하는 일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의에 이어 질문이 이어졌다. 강의는 15일 "청교도와 회심, 훈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오덕교 교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와 총장,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교수로 섬기고 있다.

줌 회의 참가는 us02web.zoom.us/j/81618207267이나 816 1820 7267로 참가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7)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산교회담임)



##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적이고, 해방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통적인 교부들(Church Fathers)은 ‘여성에게 대해 똑같이 부정적이고 멸시적이었으며 결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멸시적이었다.’

크리스토퍼(Chrysostom)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어거스틴(Augustine)은 “출산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성교에 수반되는 정욕은 언제나 죄악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리겐(Origen)은 “만일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류는 성적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천사

인 목적을 제시한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결혼이 단순히 자녀생산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서로 돕고(창2:18) 둘째, 생육하여 번성하며(창1:28) 셋째, 성범죄를 방지하고(고전 7:1) 마지막으로, 경건한 후손을 두는데 있다(말2:15)고 보았다. 특히 크랜머(Cranmer)의 공동기도서(1549, 1552)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명예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동으로 맺어주시는 것이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도에 따라 모든 일에 동등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자녀를 낳고 간음을 피하고(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그렇다 결혼이란 동성간이 아닌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하와, 곧 여자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고”(창2:18), 예수님 또한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마19:4, 5)고 결혼을 명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동성결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가장한 범죄(롬1:26-27, 창19:24-25)가 된다. 결혼은 창조의 명령이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최대 선한 선물이다.

매튜 헨리는 창세기 2장 22절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의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보다 높아지기 위해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아니요, 그에게 밝히기 위해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며 그와 동등하고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기 위해 그의 옆구리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석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시듯 아내 사랑을 실행하고, 아내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다(엡5:22-28).

kimjoyh@gmail.com

이란 “낙원에서...제정된 것으로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결혼이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같이 인간의 이상적인 삶에 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교도 결혼의 평균적인 연령은 신부는 약 21세, 신랑은 24세였다. 결혼한 자녀들은 성경대로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

마지못해 묵인하시는 거의 불신성(不神性)에 가까운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선물로 보았다. 남편과 아내를 단순히 아이를 낳으려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도 성직관계를 가졌다. 실로 청교도들은 이 영역에서 배우자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않은 것은 이혼



### 하나님께 헌신과 충만한 영성유지 못할 우려로 특정 오락 활동 반대 결혼의 사중적 의미: ①서로 돕기 ②생육 번성 ③성범죄 방지 ④경건한 후손

#### 3) 성경적 문화관(Biblical Cultural View)의 회복과 부흥

청교도 문화는 여러 방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저술이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정작 1세기 동안 엄청난 양의 저술을 생산했는데, 설교들과 신앙논문들, 역사에 관한 저작들, 전기들, 자서전들, 시들이 있다.

#### (1) 음악, 그림, 연극(Music, Painting, Theater)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고도의 기능과 미적 감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구, 도자기, 유리제품, 의상, 미술, 그리고 모든 종류의 가공품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세련된 안목과 때로는 우아함까지도 나타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사랑과 음악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거나 레크리에이션이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라이트(Wright)는, “뉴잉글랜드에서 음악은 청교도 예배에서 제한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렇다고 청교도들이 음악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다. 교회에서 음악과 미술을 반대했던 것은 카톨릭 전통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또한 말씀 전파가 예배의 초점이 되게 하려는 열망에서였다”라고 말했다.

청교도들은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허용했지만 악기의 반주 없이 불러야 했다. 오르간, 전문음악가, 라틴어 찬송들은 청교도 예배에 발붙일 곳이 없었다. 초기 뉴잉글랜드인들은 여러 가지 성악을 즐겼는데 단, 가사가 “음탕하거나 호색적”이 아닌 것이었다.” 또한 청교도들이 대부분의 종교적인 미술을 “로마가톨릭적”이고 잘못된 믿음의 장애물로 거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종교적인 미술까지 혐오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비석들에 상당히 기교한 상징적 조각들을 새기는 것을 싫어했다.

17세기 내내 뉴잉글랜드에서 배우들과 연극은 환영받지 못했다. 청교도들은 그 장소를 본질적인 악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시간을 낭비하는 곳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뉴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역시 연극을 천박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금지시켰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카니발이나 축제 때, 또는 무도회나 카드놀이에서의 외설을 공격했던 것은 영성유지를 위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 (2) 오락(娛樂, Amusement)

특정한 오락 활동들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부적절함-부도덕하고 유해하고 단지 시간을 허비하게 함으로 게으름을 조장하는-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7세기 청교도들은 도덕적으로 해이된 시대에 있어서 버림목 효과를 가졌다. 청교도는 그의 시대의 방탕과 경솔에 대한 등불과 허리 띠 역할을 했다.

레란드 라이큰(Leland Ryken)은 “청교도들은 오락에 대한 생각에 있어 극도로 실용

주의적이어서 여가 활동을 스스로를 위해 즐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교도들의 신앙과 세계관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과 오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과 충만한 영성유지를 못하고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했던 것이다.

#### 4) 성경적 결혼관(Biblical Marriage View) 회복과 부흥

하인리히 벌링거(Heinrich Bullinger)의 “기독교 결혼의 의식”(The Christian State of matrimony, 1541)에서 결혼

했고,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일반적으로 7명이었다. 또한 재혼은 흔한 일이었고, 종종 배우자가 사망하자마자 재혼하기도 했다.

존 윈드롭은 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30세에 세 번째 아내를 얻었다. 대부분 가족은 핵가족이었고,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드물었다.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성경적 모범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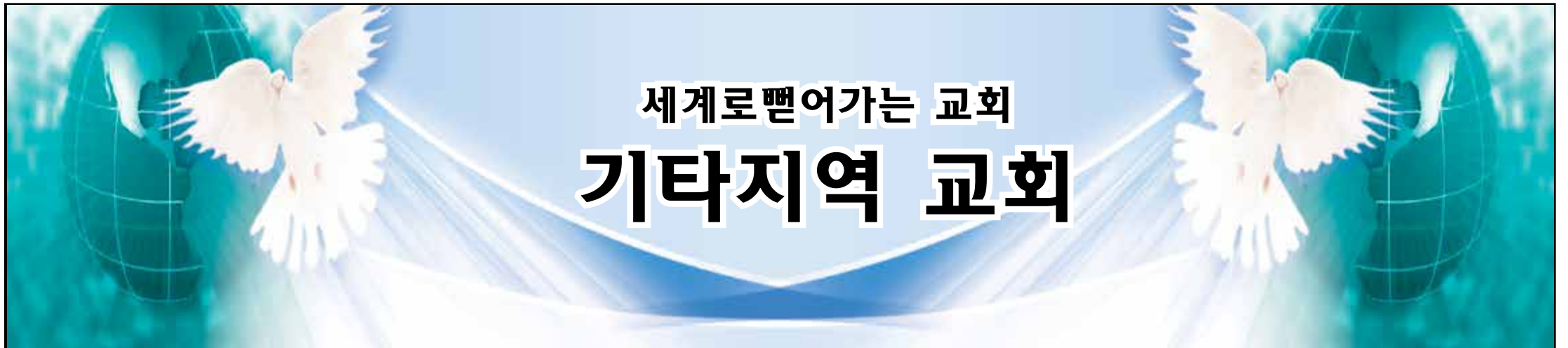
알렌 카튼(Allen Carden)은 “청교도들은 성을 하나님께서

고 교회에서의 출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결혼관계 내에서의 성행위를 중시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성적 융합이 너무 의미심장하고 신성하므로 그 악용을 삼가함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에 대한 청교도들의 태도는 특별히 독신을 찬양했고 결혼생활 내에서의 성까지도 거의 그들에게 봐주지 않았던 중세의 카톨릭 전통과 비교할 때 오히려 혁명

적인 방법으로 번식했을 것”이라 했다.

위와 같은 교부들(Church Fathers)의 부정적 배경은 수세기 동안 조직적으로 결혼과 성적 관계를 타락시켜온 그리스도, 로마의 문화에서 무부정적 영성이었다. 이 잘못된 성에 대한 의식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했고 청교도들이 삶으로 실천했다. 로마가톨릭교회에서는 결혼의 주된 목적이 자녀생산에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성공회는 이보다 포괄적인 삼중적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야):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1235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살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령찬양: 오후 1: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70% 개신교인 유튜브 이용률 타종교인보다 높았다

예장합동, 전국 1000명 설문 조사

종교인 중 개신교인의 유튜브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힘써야 할 분야로는 '사회적 약자 구제·봉사'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케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20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예장합동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 사용 빈도를 묻는 항목에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53.8%였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8.7%에 그쳤다. 종교별로는 일주일에 3-4번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개신교인이 70.6%로 천주교(53.3%) 불교(67.3%)보다 높았다. 온라인 종교집회에 참여한 경험도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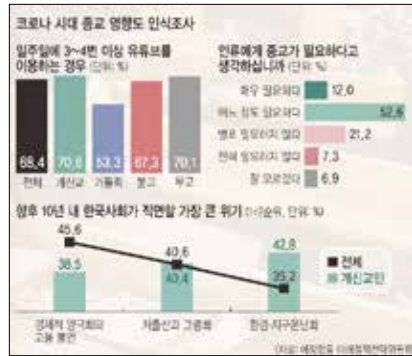
중 37.5%가 있다고 답했는데 개신교인이 62.6%로 종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33.4%와 11.7%였다.

온라인 종교 집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생각보다 괜찮았다'(45.8%) '현장 집회보다 못했다'(49.1%)는 의견이 갈렸다. 소 목사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영적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들 돕는 교회'(52.4%)와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49.7%)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4.6%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강석 목사는 "신학자

한 질문에는 45.6%의 응답자가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 불안'을 꼽았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40.6%) '기후·환경'(35.2%) '세계적인 전염병의 일상화'(24.6%) '진보와 보수



## 가장 힘써야 할 분야... '사회적 약자 구제·봉사'

본다"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교인들이 영적인 문화와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물건구매(57.7%) 영화감상(35.1%) 회의(33.7%) 종교활동(27.1%)에서 변화가 가장 컸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힘써야 할 분야로는 '사회적 약자 구제·봉사'(49.6%) '정부와 소통'(21.7%) '사회 통합'(17.2%) 등의 순으로 꼽았다. 개신교가 추구해야

할 분야는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기존 교회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커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종교적 욕구,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영(靈)택트가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과제로 부상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영택트'는 영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종교의 건강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팬데믹을 극복하자는 의미의 조어다.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사회가 직면할 위기에 대

갈등'(15.5%) 등이 뒤를 이었다.

소 목사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부흥과 쇠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면서 전략 수립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목사는 총회장 취임 직후 총회 본부에 미래전략본부를 조직하고 교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3.1% 포인트다.

## "생명경시풍조 조장 낙태죄 개정안 반대"

한교총, 임신 24주까지 낙태허용 개정안 반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법률 개정안은 한국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교총 측은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한다"며 "태아가 하나님을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라고 봄이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 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고 말했다.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한 부분도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돼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임신이 성범죄나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양해하지만,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 충족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교총 측은 정부에 대한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신교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해 교회가 그동안 '낙태는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지난달 7일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뤄진다면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인정되면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교회는?

충남 천안·아산 제외 전국교회, 한 칸 띄고 예배 가능

정부가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교회도 정부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맞춘 대응이 필요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7일부터 전국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1 단계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종교활동을 대상으로 정한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다.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앉을 때는 좌

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는 자제가 권고되며,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황 조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교회의 정규예배참여 가능 인원은 예배당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정부의 단계별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한교총은 6일 발표한 '방역 단계 조정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코로나시대에 맞게 K방역의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방역의 기반 위에서 한국교회가 '자존감 있는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계 조정과 예측 가능한 대응 원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서 공히 같은 원칙이 적용된 점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깊이 인식해 전국 교회에 집회와

활동에서 밀접 접촉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계별 방역 방침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교인들에게는 사회적 활동을 단순화해 감염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영적 예배와 기도에도 힘쓰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주변의 상인들과 이웃들을 돌아봐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현행 3 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중대본이 정한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됐다.

다. 토론자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는데도 제어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진평연 등은 "방심위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심위가 내린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종교·언론의 자유 억압" 규탄대회

차별금지법 위헌성 보도에 경고 내린 방심위 진평연 등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기독교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교언론 법적 제재 규탄대회'를 가졌다.

진평연 등은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

숙)가 지난달 21일과 28일 기독교계 방송 CTSA와 극동방송을 상대로 잇따라 법정 제재 '경고' 조치를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방심위가 위치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입구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방심위 결정은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적한 부분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를 듣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일 뿐 찬반 토론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인 교계 연합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등 교계 대표성은 물론 기독교 내부의 균형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 원로칼럼

###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상)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 필자의 강연을 정리한 것으로 '원로칼럼'에 대신한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에 나와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최근까지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렸다가는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감시하고, 당국에 보고해서 벌금을 가하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라고는 하나, 다분히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

이며, 방역행정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위한 길들이기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도 사실인 듯 합니다.

먼저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왜 이런 어려운 시국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쩌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또 교회와 국가에 대한 바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정교분리에 대한 잘못된 도그마를 교정하고, 칼빈주의적 시각에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쩌해야 하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새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결국 한국교회가 세계에 우뚝 서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세계에 가득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 1.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 있는 물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제 양복 왼쪽에 차고 있는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1년 6·25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왔던 미국의 육군 군목 사이몬(Chaplain Simon) 목사가 차고 있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그가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미군 장병에게 신앙과 용기를 주던 그의 땅과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사실 북한 김일성이 6·25 불법남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없어질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이 참전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여기 조그마한 실크 손수건이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과 유엔군이 힘을 합쳐서 공산당을 무찔러 북으로 내쫓고, 낙동강 이후의 대구와 부산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인 1951년 대구시민들이 한국군과 미군과 유엔군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너무나 너무 고마워서 이 손수건을 선물로 만들어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태극기, 유엔기, 성조기를 그렸고, 영문으로 'Thank you U.N. Army, Taegu, 1951'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후로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 70년간 시달려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후진이후에도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적화를 노려왔고, 국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끊임없이 세자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 각계각층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올인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어서 주체사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꼭 40년 전인 1980년에 저는 대학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대학 총장이었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는 분은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군부독재에 대한 젊은이들의 민주화 항거가 많았습니다. 특히 광주 5·18사태로 나라가 비상시국에 들었을 때, 이런 혼란한 시기에 절호의 기회를 북한 공산당이 그냥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많은 세자들을 보내 학원과 노동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M.T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가평과 양수리 등에 소모임방을 준비하고, 프린트물로 된 교재를 만들어 민주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란 내용은 공산주의 사상, 곧 주체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학생들은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인 지도 모르고, 군부독재 정치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사회를 비판하고,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이 땅에 이상주의적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그것이 민주화이고, 애국하는 길이고, 주체사상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의 교재들은 '신막스주의', '메판자본주의' 등 프린트물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운동권 학생들은 기업가와 부자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평화, 평등사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한 운동권이 되었고, 그 후 이들이 수없이 많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비밀단체로 결성해서 서로 서로 뭉치고 조직화 하면서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 후 4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사회주의 주체사상이 민주화인줄 알고 교육받은 자들 모두가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법조계, 군사,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세자들에게 붙잡힌 그 운동권 자들의 활약 때문에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드디어 우리 정부는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각계각층에 포아리를 틀고, 혁명의 전사로 뭉치고 서로 연대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노동계를 모두 점수했고, 전교조를 결성해서 초·중·고에게 의식화 교육을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기독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안일했고,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만 매달려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사는 비결만 가르쳐왔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같은 사상교육을 전혀 시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요, 갈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부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북주의자가 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오래 깊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퇴조하고, 과거 종북주의자들에게 세뇌 된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좌클릭해버린 상태입니다. 금년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한국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잘 훈련받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심한 일반인들은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가는 데도 당장 나에게는 별일이 없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론에는 먼저 들어간 정보가 나중 들어간 정보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즉 젊은 날에 습득한 주체사상 이론을 나이 육십이 넘었는데도, 그런 공산주의 교리에 갇혀 있어서 정부관리들 중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우리끼리' 통일정부를 만들고, 연방제를 꾸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이론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지도자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계, 심지어 종교에까지 포진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skc0727@yahoo.com



# 선교의 창 (15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카타콤 성도들의 신앙

지금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패닉(panic)상태에 놓여 있다. 목회와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2천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회중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가?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적하는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Post 코로나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의 환경은 지금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는 그 발발 원인이 아직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 뭔가 변혁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 모델이 바로 카타콤이다.

### 1. 초기 성도들의 안식처가 된 카타콤

카타콤(Catacomb)과 콜로세움(Coliseum)은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카타콤은 라틴어 단어 "가운데"(cata)와 "무덤들"(tumbas)이 합성되어 "무덤들 가운데"(among the tombs)라는 의미이다. 이는 로마시대에 기

독교인들이 교우를 묻기 위해 만든 지하무덤이었다. 카타콤은 로마의 전형적인 묘지인 하나 이밖에 나폴리, 시칠리아,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파리 등지에서 그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수평의 벽관들을 파서 시체를 안치한 뒤 벽돌이나 석회로 밀폐했다. 공간이 약간 넓은 곳에서는 장례식도 치렀다. 저들은 이러한 장례식 공간을 예배장소로 이용했다. 로마부근 언덕에만 해도 카타콤은 50여개나 되며 거미줄같이 굴착된 행랑들의 총 길이는 8백72km나 된다고 한다. 카타콤의 경도는 미로와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로마병사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 음습한 카타콤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죽은 자를 묻기 위해 만들어진 카타콤이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안식처가 된 것이다.

### 2. 콜로세움(Colosseum)에서 순교한 성도들

로마의 상징과 같은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자료를\\_의하면\\_이는\\_AD72년\\_베스파시아누스\\_황제가\\_착공해\\_8년](https://ko.wikipedia.org/wiki/자료를_의하면_이는_AD72년_베스파시아누스_황제가_착공해_8년)

뒤에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했다. 콜로세움은 그 길이는 189m이고 너비는 156m이다. 또한 그 면적은 24,000제곱미터이다. 외벽의 높이는 48m이고, 둘레는 본디 545m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에 균열이 갔고 남쪽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현재에는 북쪽 벽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로마제국의 전성기에는 5만명에서 8만 명의 관중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으며, 모의 해전, 동물 사냥, 신화의 재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이토록 아름답고 웅장한 경기장에서 처절한 비극이 벌어졌다.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게 한 것이다. 호세로 대학 교수인

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 3. 카타콤 교회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IXOCE(익투스)라는 암호를 통해 서로 기독교 인임을 확인하였다. IXOCE는 IHOYX+XPOYCTHOU+YIC=ZWP라는 헬라어 첫 글자를 따와서 생겨난 말이다. HX+H+YIC=IXOCE.2.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물고기"에 압축되어 들어간 셈이다. 이로서 카타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었다.

그 믿음은 저들에게 △함께 떡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했다. △사망권세까지도 조율하게 했다.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게 했다. △고난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했다. △서로 위로하며 의지하

믿음을 소유했다. 여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 폴리갑(Polycarp, 69-155)은 요한 계시록 2:8-11에 언급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다.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을 형장으로 끌려갔다.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황제와 경배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폴리갑은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화형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그 때에 원형경지장 안에는 지금까지 말해보지 못했던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전1:18).

이에 비해 지금의 기독교회는 어떠한가? 멋진 예배당, 쾌적한 환경, 기름진 음식, 현란한 예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맺음 말

"Dum Colosseum stabit(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Roma stabit(로마도 서 있고)/dum Roma stabit(로마가 서 있는 한)/mundus stabit(세계도 서 있으리라)." 이 시귀는 수도사 요 신학자인 베다 베네라빌리스(Beda Venerabilis)가 한 말이다. 콜로세움과 함께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제국 로마는 어디로 갔는가? AD476년에 망하고 없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나라는 로마를 뒤엎었고 2천년의 역사의 맥을 따라 도도히 확장되어왔다.

지금 세계인의 1/3이 주님을 믿고 따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카타콤 성도들의 피 맺힌 절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저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익투스(IXOYΣ)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한 COVID19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듯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 때는 그 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어리석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며 가나안(나하)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듯 우리도 육신의 소유이나 세상의 풍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믿고 가야 한다. 그 답은 카타콤 성도들처럼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 카타콤 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을 건 생활신앙이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정제되고 빛이 난다. 선교는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이다.

Christopher Kelly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기독교도들의 순교가 유혈이 낭자한 구경거리였다.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77년 리옹에서 한 무리의 기독교도를 죽임으로 내몰았던 군중은 기독교도들이 고문대에서 찢기고, 철관 의자에서 그늘려지고, 황소 뿔에 받히고,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며 갈채를 보냈다. 원형 경기장에 질서 있게 앉은 잘 차려입은 군중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도들을 사자에게 던져주는 행위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로마 다수파의 권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은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했다. △행전2:44-46말씀처럼 네 것-내 것을 나누지 않는 실제적 삶을 공유하게 했다. △300년 동안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살과 뼈가 뜯기면서도 배교하지 않게 했다. △계급이 없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게 했다. △암재 속에서도 누룩처럼 번지게 했다. △마침내는 영원할 것 같은 로마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하게 했다.

### 4. 카타콤 교회와 현대 교회의 비교

카타콤 시대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램, 수많은 성경공부와 기도회가 있다. 그러함에도 현대교회에는 왜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이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가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하는지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제도권(Christendom)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체출되지 않은 채 관념적인 종교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콤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자발을 뺀개고 주님과 연합된 정말론적인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22말씀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생활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드라마 예언서 (11)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은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의 마음으로 부른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 예레미야애가 배경

예레미야애가는 영어로 Lamentations인데, '슬픈 통곡의 노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힐기야는 여호와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시아왕은 그 율법책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선조들이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고 예레미야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신명기일 가능성이 크다)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예언,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읽었고(신31:16-17), 그 슬픔을 노래에 담아 이스라엘 앞에 부르라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신31:21-22). 예레미야도 모세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차 갈그미스 전투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

해 1차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BC605)과 여호야킨을 포함한 약1만 명의 2차포로가 잡혀가는 모습(BC598), 그리고 12년 후에 남방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눈이 뽑혀지고 3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장면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통증과 하나님의 통증을 우리도 느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 예레미야애가의 내용

아, 슬프다! 어찌하여 그 아름답던 성전과 예루살렘도성이 이렇게도 처참하게 폐허가 되었단 말인가! 이 슬픔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나(예1:1-2). 유다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이제는 시온으로 가

는 길이 탄식이 되었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도 없구나(예1:3-4).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우두머리가 되어,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구나. 그런 고통 중에도 아무도 예루살렘을 도우는 자들이 없구나. 오히려 유다의 대적들은 유다의 멸망을 비웃고 있구나(예1:5-7).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의 범죄함 때문에 벌어졌고, 대적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가고 있다(예1:8-10). 이 모든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예1:18).

예레미야는 탄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을 때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땅에 던지셨구나. 주님께서는 야곱의 거처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꺾으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도성이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도다(예2:1-4).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궁궐이 불살라졌고,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께서 초막(성막과 회막)을 부수어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도 없애버리셨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참 예배를

유다백성들이 망하여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예2:11). 원수들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을 벌리며 비웃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삼켰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고 떠들고 있구나(예2:16).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예2:17).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주를 향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감출처럼 흘리며 쉬지 말고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예2:18-19). 주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도다(예3:1-18).

내가 겪은 재난과 고통을 잊지 못한다. 그 재난과 고통으로 심히 낙심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것은 끝이 없는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다(예3:19-2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선한 분이시기에,

남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사 우리의 원수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예3:42-54). 여호와여, 이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예3:55-66).

멸망 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순교의 빛을 잃고 변질되고, 성전의 돌들이 거미마다 흩어져있다. 백성들은 마치 목말라서 허가 입전장에 붙은 젖먹이들 같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주는 이가 없다. 진수 성찬을 먹던 자들이 길거리를 떠돌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지금은 거름더미에 뒹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소돔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예4:1-6). 칼에 죽는 것이 굶어죽는 것보다 나은, 이 도성이 망할 때 부녀자들이 자기자식을 삶아 먹기 때문이다(예4:9-10).

여호와여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주소서.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그들은 없어졌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상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예5:1-18). 여호와여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주소서. 어찌하여 우리를 생각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주소서(예5:19-22).

다음시간에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통곡의 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역으로 인하여 같이 우리자녀를 살육하고, 집안에는 죽음이 가득한 절망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멸망을 비웃는 대적들도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예1:20-22).

드리지 않고 종교행위만 하던 당신의 제단도 버리고,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성문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주님께서 빗장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예2:5-9).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예3:24-26).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기 때문이다(예3:32-33).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3:40-41).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이십사 장로들은 누구인가?(계4:4-6)찬87장

천상에서 보여진 24장로는 누구이며 보좌를 중심하여 나타난 형상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24장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속받은 교회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의 임재가운데 영원히 섬기는 특권을 가집니다(4). 둘째, 흰 옷과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것은 성결 안에 왕권을 가진 모습으로 보좌에 계신 분을 닮았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그 분을 섬깁니다. 여기 보좌로부터 나온 번개, 음성, 우렛소리는 신적 거룩의 표현으로서 일곱 등불이 상징하는 성령의 통제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천상의 장로인 교회는 영원한 성결과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 섬김의 본을 따릅니다.

## 화 네 생물은 누구인가?(계4:6-8)찬364장

첫째, 그들은 눈이 가득했습니다(5-6). 눈은 살피는 도구로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을 의식하는 상징입니다. 네 생물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그들의 얼굴은 네 생물의 형상을 가졌습니다(7). 여기서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으로 구분되나, 에스겔은 한분의 얼굴에 네 형상이 모두 보인 것은 하나님

의 완전한 형상을 반영한 고급 천사인 것 같습니다. 셋째, 그들은 여섯 날개로 항상 찬송했습니다(8). 봉사의 수단인 여섯 날개는 이미 이사야에게 보여진 것으로서(사6:2) 네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신적 영화에 적응된 섬김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 수 네 생물의 찬양(계4:9-11)찬183장

네 생물의 찬양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합니다(8-9).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선재자, 창조자, 섭리자 그리고 심판자로서 모든 일을 거룩 위주로 행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거룩만이 복이고 의이고 영광이고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 없더라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는 일은 참된 예배자가 가진 자아부인과 전적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 둘이 없는 경배는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습니다(11). 영광, 존귀, 권능이 모두 주께 속한 것이고 창조와 섭리와 심판이 그의 손에 있음을 찬양함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 목 구속을 이룰 분(계 5:1-5)찬182장

요한이 본 계시는 보좌에 계신 분이 가진 책을 조명합니다. 일곱인자로 봉인된 그 책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구속을 가리킵니다. 구속을 이룰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구속을 이룰 자는 천상천하, 동서고금을 통하여 피조물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곱인자를 열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아는 것이 복음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 절대 불능을 알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자이십니다. 여기 유대지파의 사자란 예언대로 유대 지파에서 나신 분이란 것이고 사자 다섯의 뿌리란 다윗 왕권을 통해 오신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속자는 사자 같은 권능으로 일하시나 어린양의 원리인 십자가를 집으로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 금 보좌 앞에 서신 어린양(계5:6-7)찬511장

네 생물과 24장로 중앙에 서있는 어린양의 모습입니다. 그 분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여줍니까? 첫째, 그는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속죄 제물되심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성령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이 가진 일곱 뿔과 일곱 눈

은 성령의 임재 속에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로 나가지 않은 구속은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림 때까지 온 세상에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바로 그 어린양이 일곱인자를 열기위해 보좌로 나가 그 책을 들었습니다. 구속을 실제로 이루신 그 어린양 예수님만이 영원히 그 효력을 나타내십니다. 구속주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 토 새 노래(계5:8-10)찬27장

구속을 이루신 어린양을 향한 24장로의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7). 넷째, 죄 사함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아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8). 이 모든 것이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새 노래 속에 보여진 약속을 주장하여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첫째, 오직 어린양, 예수만이 구속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심을 노래했습니다(6). 둘째, 그의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셨음을 찬양했습니다(7). 셋째, 그의 피로 택한 자들을 자기 것으로 사서 성부께 선물로 드리셨음을 찬양했습니다

#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 Google렌즈 기막힌 활용법

강원도의 가을은 춥습니다. 서울은 아직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지만 이곳의 최저기온은 영하이거나 영하에 가깝습니다. 싸늘한 새벽 전기 난로를 켜 놓으면 금새 훈훈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던 눈도 며칠전 버를 싹 베어내고 지금은 빈 눈에 다발로 묶여있는 벚꽃만 보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올 것이고 눈이 쌓이겠지요. 그리고 또 봄이 올 것이고. 물론 캘리포니아에도 겨울은 있습니다.

글 번역으로 이동하며 바로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찍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간판을 찍어도 되고 음식점에서 메뉴를 찍어도 됩니다. 이제 혼자 외국에 나가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습게 볼 추위지만 얼음도 얼지 않는 곳에서 LA사람들은 오리털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나름 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뉴인 텍스트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곳 원주는 이상하게 감나무가 보이지 않아 몰랐더니 이곳에선 감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시골하면 생각나는 것이 감나무인데...

눈에 보이는 책이든, 화면이든 글씨가 있는 곳을 찍으면 그것을 바로 글씨로 변화시켜주는 기능인데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식물은 기후나 환경에 아주 민감한 모양입니다. 아주 오래전 대구는 사과와 고장이었지만 기후가 변하며 이제 사과는 고산지 작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다 생선은 더욱 그러해서 동해바다의 온도가 바뀌며 그 많은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의

먼저 화면에 보이는 대로 듣기를 누르면 소리로 글을 읽어줍니다. 이 기능은 눈이 어두운 어른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누군가 찍어서 듣기를 누르면 바로 그 내용을 읽어 주기 때문입니다.

## 사진 찍어 글로 변환한 것을 터치해 컴퓨터로 옮겨

욕심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 오염과 같은 긴 장마, 태풍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전체선택을 누르면 화면의 글 전체를 선택해 주고 원하는 부분은 터치해 하고 네모상자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까지 Drag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화면에 텍스트 복사와 컴퓨터로 복사가 나옵니다. 텍스트 복사를 누르면 선택된 텍스트를 복사하여 내가 필요한 곳에서 붙여넣기를 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바로 이 컴퓨터로 복사입니다.

Google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경우도 구글을 빼면 50%도 남지 않을 정도로 구글 의존도는 큼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존도는 더 커져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것은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전에 한번 소개한 Google Lens에 대해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복사한 내용을 바로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구글렌즈에 있는 여러 기능 중 특히 사진을 찍어 글로 변환하고 이것을 한 번의 터치로 컴퓨터로 옮기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글을 많이 쓰는 분들은 꼭 익혀 두어야 할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컴퓨터로 복사를 누르면 내 컴퓨터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사용하려는 컴퓨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구글렌즈는 안타깝게 아이폰에는 없습니다. 구글렌즈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동작하면 카메라가 나오며 아래 부분에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는 번역, 텍스트, 검색, 과제, 쇼핑, 장소, 음식점입니다. 이중 번역은 보이는 글을 사진 찍으면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내 컴퓨터에서 문서에서 사용하려면 문서를 열고 붙여넣기를 누르거나 Ctrl-V를 누르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구글렌즈로 찍은 글이 데이터로 변환되어 내 문서에 글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모두 복사해서 번역에 붙여 넣어도 되지만 바로 구글 번역에서 열기를 하면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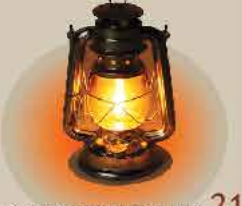
예를 들어 누군가의 책을 이렇게 글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한 페이지씩 일반 사진으로 일단 찍어두고 그것을 불러 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렌즈의 화면 아래 카메라 셔터 왼쪽의 그림을 누르면 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 나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전체선택, 혹은 손가락으로 눌러 부분선택을 한 후 컴퓨터로 복사를 누르고 컴퓨터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여러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주성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축석루 비석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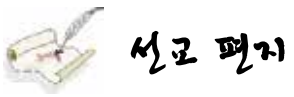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페루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세계는 지금도 Covid-19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해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페루는 오늘까지 854,000명의 확진자가 있었으며 사망자는 33,500명이라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으리라는 소문은 이미 기정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Covid-19 상황은 저희가 살고 있는 Huaraz지역도 피해가지 못했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 또한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여러 교인들이 감염이 되었으며 그중 한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Covid-19 감염 사망자라 하여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망 그 다음날 바로 인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후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Covid-19 상황은 저희가족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전혀 방역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함께 살아가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했는데, 이미 저희들도 언젠가는 감염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작은아들 정민이로부터 감염증상이 시작되어 저와 더불어 아내인 김혜린 선교사까지 감염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는 진단키트를 구할 수도 없고 현지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코로나 확진이라는 것과, 뉴욕에 계신 전문의 집사와의 상담을 통하여도 확진증상이 맞다는 소견을 듣고 온 가족이 자가 격리기간을 마치고 이번 10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모든 식구는 경미한 증상과 몸살정도의 증상이 있었을 뿐 다른 특별히 심각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Covid-19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번사태를 통하여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주님을 멀리 떠났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보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3월 Covid-19사태가 터짐과 동시에 센터 뒤에 있는 밭에 감자와 옥수수 등 온갖 채소들을 심고 지금까지 두 번의 수확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가난한 분들에게 마스크 및 생필품 등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와 양계사역을 하려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팬데믹이라도 각 나라마다 그 상황이 다르고 또 같은 나라 내에서도 각 지방마다 경험되어지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Covid-19 감염 못지않은 굶주림과도 싸워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시작한 사역입니다.

이제 10월을 기준이 Lock-Down이 풀린 이후 저희 센터의 사역자들은 원래 사역하던 각자의 사역지들을 방문하여 지역마다 가정별 예배 및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 교통매체마다 정인원보다 절반만 탑승하는 관계로 교통비도 두 배로 오르고 또한 같은 감염 우려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용하기에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 도착한 후 교회에 적지 않은 부흥도 있었고 또한 이번 팬데믹 기회를 통하여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올 일과 또한 저희 센터의 사역지마다 늘어나는 그룹별 성도들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센터용 미니밴 구입을 놓고 기도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앞으로 계획 중인 이곳 센터에서의 기독교학교가 하루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1. 이곳은 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에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침대가 없고 산고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편지를 쓰는 가운데 예전 저희센터에서 동역하던 현지인 목사님 한분께서 코로나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과 센터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2. 이곳 Huaraz는 페루의 수도 Lima에서도 약 8시간이 떨어진 곳



이기에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 많이 외면되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분들은 이번 락다운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3. 센터의 동역자들의 사역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센터용 Mini Van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이 하루 빨리 끝나고 센터에서 기독교 학교가 하루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5.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모든 교회 또한 어려운 재정문제로 인하여 저희 선교사의 후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페루에서 김도경, 혜린 선교사 올림.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팻물

팻물은 사랑이며 나눔이고 자기희생이다. 어쩌면 팻물할 수도 있는 자기의 권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며 배려이기 때문이다. 팻물이 더 놀라운 것은 일대 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팻물은 가뭄이 들었을 때 공동으로 물을 찾아서 그 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논부터 물을 퍼가도록 하는 생명과도 같은 물의 이름이다. 말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에 가까이 물을 양보한 생명수의 이름이기도 하다. 한국인을 가리켜 독 속의 게와 같다는 말이 있다. 독 속에 게를 풀어놓으면 서로 밖으로 기어 나오려 안간힘을 치지만 결국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밑에 있는 게가 올라가는 게를 끊임없이 물고 당겨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중국인 1명이 붓짐을 들고 공항에 내리면 중국인 10명이 심시일만보로 도와 가게를 낼 수 있게 해준다. 다음번에 다른 중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도와서 자리를 잡게 해준다. 반면 한국인은 1명이 이민을 오면 10명이 달려들어서 벗겨먹는다. 또 다른 한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달려들어 망하게 만든다. 한 때 이민사회에서 나돌던 슬픈 이야기다.

영국속담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는 말이 있으나 한국에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부끄러운 속담이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슬픈 민족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전부 아니다. 한국에는 두레라는 아름다운 생활공동체가 있다. 지금처럼 혼란시대에는 백악이 무효하듯 낯선 구호가 되어버렸지만 이전의 농촌에서는 온 동네가 상부상조하며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살았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했던 새마을운동의 저변에는 '우리 함께' 라는 두레의 정신이 녹아들었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저 살기에도 바빠 이웃을 돌아볼 여유나 여지는 거의 실종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아파트의 같은 층 옆집, 이전 같으면 이웃사촌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오가며 부엌의 손가락 개수까지 알고 도 남았을 그 이웃, 옆집 사람조차 알지 못하고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너는 너, 나는 나로 외면하고 만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 되었다.

서로 도와 상생의 분이 되었던 중국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가 맞아 죽어도 신고하는 이조차 없고 길거리에 거품을 물고 쓸어져 죽어가도 고개를 돌려버린다. 무슨 사연이었는지 모르나 젊은 여인이 십여 층 건물의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며 뜬말이 자 말고 뛰어내리라고 충동을 하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마저 책임지지 않는 야속한 세상으로 변질이 되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각박해질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거기에 성도(聖徒)라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더 사람다워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창조된 만물 가운데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16)고 증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사랑이어야만 한다.

사랑? 사랑은 어렵다. 한 마디로 정의도 되지 않는다. 희생, 양보, 참음, 주는 것, 낮아지는 것 등등이 다 포함되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마냥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말세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말세일 수밖에 없다. 희생은 고사하고 양보조차 찾아보기가 어렵다. 운전할 때 차 한 대쯤 내 앞에 끼워준다 해서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나 역시 쿨하게 양보한 적이 별로 없다. 성도답지도 사람답지도 못한 모양이다. 그래서 팻물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사람다움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라는 미국대선에 사람다움은 없었다. 비관과 비방으로 얼룩졌고 불복, 무효라는 말이 난무했다. 한국의 정권이 바뀐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 적폐정산이라는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사람다움이 없다.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세상에 팻물을 쏟아 붓고 싶다. 희생과 양보와 존중 등이 담긴 팻물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기를 기대해본다. 아직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사람에게 거는 기대 역시 유효하기에.

hanmackim@hanmail.net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ampus with a fountain. Text includes: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and a list of degree programs and application details.



